Magazine

새벽종

2025 07+08 제21호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벽종 2025 07+08 제21호

새마을운동중앙회

RECYCLED PAPER

PRINTED WITH SOY INK

〈새벽종〉은 친환경 종이와 콩기름 인쇄로
제작되어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섭니다.

07
9 772799 934002
ISSUE NO.21
ISSN 2799-9343

더 많은 〈새벽종〉을
만나보세요

새마을운동중앙회

THEME

따뜻하고 튼튼한 공동체를 만드는 새마을운동

서로 인사하며 안부를 묻는 마음,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일상이 바로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의 시작입니다. 나 하나에서 모두로 이어지는 실천, 그것이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새마을운동의 길입니다.

youtube.com/@새마을운동중앙회
instagram.com/letssaemaul
facebook.com/letssaemaul
blog.naver.com/letssaemaul
pf.kakao.com/_zNxkxnT

Magazine
새벽종

2025 07+08
Vol.21

CONTENTS

울리다

06
새마을 줌인
새마을운동,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다

10
새벽종 소리
함께의 이름으로,
새마을을 잇다

14
반가운 울림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힘찬 동행, 동전의 기적'

18
새마을운동 일기
함께 고치고
함께 사는 마을

깨우다

20
새마을 人터뷰 1
서울 강남구새마을회

24
새마을 人터뷰 2
제주 서귀포시
신머들새마을작은도서관

28
청년 새마을 톡
상지대·강원대 새마을동아리

32
지구촌새마을, 함께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 4년 차 도미니카공화국
– 2년 차 온두라스

36
희망 에세이
푸른 여름날, 새마을가족의 마음에
응원의 바람이 불어오다

Cover Story
누군가의 안부를 묻고, 이웃의 마음을 살피는 따뜻한 실천이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새마을운동이 만드는 건강한 공동체란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어
삶을 지지하는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내 이웃을 내 가족처럼' 여기며 곳곳을 살피고
서로를 향해 따뜻한 손길을 내밉니다.

발행일 2025년 07월 25일 | **발행처** 새마을운동중앙회 | **발행인** 김광림 | **기획** 새마을운동중앙회 홍보실 T. 031-620-2371~5, F. 031-620-2379
편집·디자인 (주)디앤씨컴퍼니 | **광고** T.031-620-2373, magazine@saemaul.or.kr | **구독·주소변경** 해당 시군구새마을(지)회
본지에 게재된 저작물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만나다

38
쉼표 여행
비밀의 정원, 모두의 길이 되다
청남대에서 만나는 여름

42
생생정보
실손보험 제대로 알고 쓰자!

44
새마을 포커스

57
새마을 라운지

새마을운동,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다**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시선, 함께 손잡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위한 작은 실천들이 모일 때 진정한 의미의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완성된다. 새마을운동은 지난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돌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살피고, 마을의 품격을 높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시 잇는 일에 앞장서 왔다. '내 이웃을 내 가족처럼'이라는 마음을 실천해 온 새마을운동이 나눔과 연대의 힘으로 공동체를 지켜내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온 과정을 소개한다.

글. 편집실

더 큰 관심으로 주변을 살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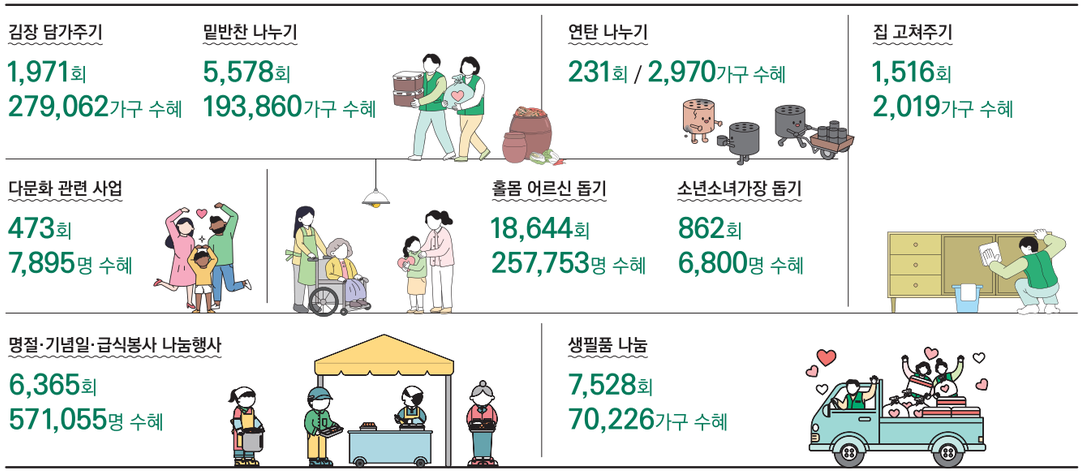
새마을 사회안전망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새마을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함께 사는 세상이란 누군가의 빈자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새마을운동은 '내 이웃을 내 가족처럼' 여기는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진 돌봄의 빈틈을 채우고, 제도나 복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가장 먼저 다가서는 손길이다.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이웃에게는 정성껏 만든 반찬을 전달하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따뜻한 식사 한끼로 외로움을 덜어준다. 누군가의 삶에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스며든 이 활동들은 전국 수십만 명의 새마을지도자와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일궈낸 나눔의 결실이다.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는 다정한 말벗이 되어주고, 소년소녀가장에게는 든든한 생활의 버팀목이 된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이해와 소통의 장을 열고, 무너진 집을 다시 세워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바꾼다. 새마을 사회안전망이 만들어 가는 이러한 온기 있는 변화는 오늘도 우리 이웃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밝히고 있다.

2024년 전국 기준



함께 만들어가는 이웃의 품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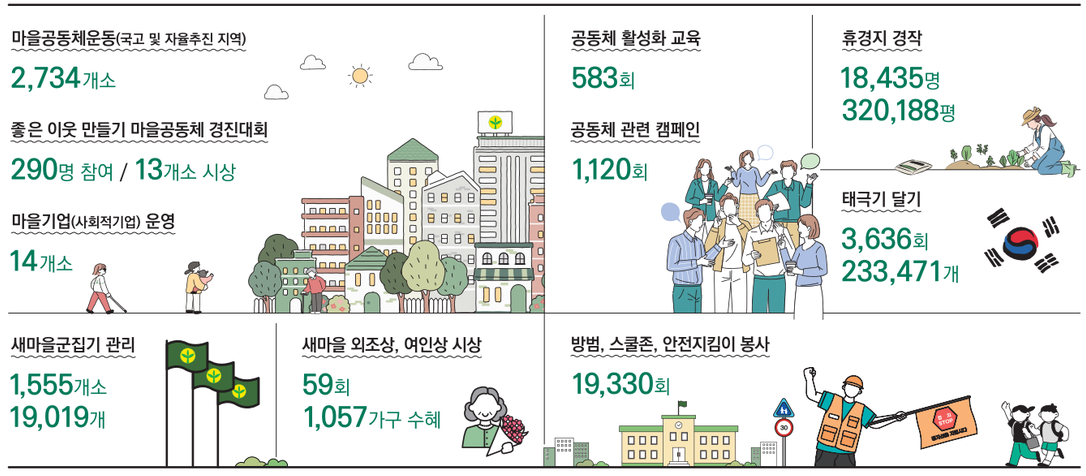
주민참여형 '좋은 이웃 만들기'

경기도 성남시새마을회 거리질서 지킴이 활동

좋은 마을은 누군가 대신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이 스스로가 참여하고,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따뜻한 공동체가 싹튼다. 새마을운동의 주민참여형 '좋은 이웃 만들기' 사업은 바로 이 믿음 위에서 시작했다.

마을에서 마을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참여와 연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고 있다. 태극기를 다는 정성 어린 손길, 휴경지를 일구는 발걸음, 방범 활동과 스쿨존 안전지킴이로 나서는 지역 주민의 모습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우리 동네는 내가 지킨다'는 주인의식의 표현이다. 새마을지도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펼치는 이러한 활동은 '좋은 이웃'이란 단어를 실천으로 옮긴 생생한 기록이며, 마을의 품격을 높이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 이렇듯 새마을운동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웃'이자 '공동체의 주체'임을 일깨우며, 참여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2024년 전국 기준



책에서 피어나는 마을의 온기

독서생활화로 창조적 지역문화 창달

책 한 권이 한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이 다시 마을을 바꾼다. 새마을운동은 개인의 성장을 넘어,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를 가꾸는 지속적인 힘이다. 전국 1,189개 새마을작은도서관을 거점으로 누구나 책을 읽고, 독서회와 문학기행을 함께 하며 세대가 어우러지는 자리를 마련해왔다. 이는 곧 지역 안에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뿌리내리는 밑거름이 됐다. 여름철 피서지에서 운영한 독서문화시설, 이동도서관 순회, 독서퀴즈대회와 국민독서경진대회는 책이 닿기 어려운 곳에도 지식의 씨앗을 전하며 독서문화를 확산시켰다. 특히 독서문화운동가 양성과정과 재능기부 동아리 활동은 주민 스스로가 지역문화의 주체가 되어 변화의 움직임을 이끌었다. 이렇듯 새마을운동은 '책'이라는

문고 전라남도 해남군지부 피서지문고

매개를 통해 사람을 키우고, 생각의 폭을 넓히며, 가치를 함께 나누는 창조적이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2024년 전국 기준

새마을작은도서관
1,189개소 운영
1,534,011명 이용

피서지 독서문화시설
120개소 운영
110,674권 준비

독서회(대학)
102개 소모임
955회 운영

시군구 독서문화행사
17개 시도 개최

독서퀴즈대회
55회 개최
7,497명 참여

이동도서관
1,828개소 순회
355,237명 이용

독서문화운동가 양성
16개 과정
621명 수료

길 위의 인문학사업(문학기행)
155회
5,107명 참가

재능기부동아리
163개 동아리
1,629회 활동

대통령기 제44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종합평가·운영 부문: 250개소 선정
독후감·편지글: 독후감 3,339편 및 편지글 1,180편 시상
독서문화유공자: 167명

함께 나누는 삶, 함께 가꾸는 미래

세대·지역·도농 간 교류협력

서울 영등포구부녀회 농촌일손돕기

도시와 농촌, 젊은 세대와 어르신, 지역과 지역이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 때 그 사회는 더욱 따뜻하고 단단해진다. 새마을운동은 '세대·지역·도농 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해 왔다. 지난해에는 전국 곳곳에서 2만 회가 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려, 농촌의 땀방울로 길러낸 정직한 농작물을 도시 장터에서 소개하고 판매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마주하는 신뢰의 장을 마련했다.

'농산물 팔아주기'와 같은 소비 연대 운동은 농촌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상생의 실천이었다. 특히 도시 주민과 청년들이 농촌으로 찾아가는 도농교류 활동과 농촌 일손 돕기 봉사는 세대와 계층, 지역과 문화를 넘어서는 이해와 배려의 장을 열었다. 이처럼 새마을운동은 각기 다른 지역과 세대가 다시 연결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2024년 전국 기준

농산물직거래 장터 20,194회 운영 / 6억 7,613만 원

농산물 팔아주기 21,112명 참여 / 110억 6,446만 원

농촌 일손돕기
1,368회 / 32,363명 참여

도농교류 활동
3,416회 / 6,947명 참여

재난 앞에 함께 서는 공동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재해 예방·복구

대전 중구새마을회 수해 피해 복구 활동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와 재난은 일상의 균형을 무너뜨리지만, 새마을운동은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며 손을 내민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건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것이다. 전국 각지의 새마을지도자들은 피해 현장으로 달려가 묵묵히 봉사하고, 이웃이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손을 맞잡아 왔다. 특히 총 5만 1,400여 건에 이르는 재난 복구 및 방역 활동, 6만 5,700여 명이 넘는 자발적인 참여는 우리 사회의 위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보여주는 공동체의 힘 그 자체다. 무엇보다 새마을운동의 재난 대응은 단발성 봉사에 그치지 않고, 평소부터 준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실천이다. 위기 앞에 함께하는 마음, 피해를 나의 일처럼 여기는 연대, 그리고 서로를 지키겠다는 공동체적 책임감. 이 모든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떠받치는 가장 믿음직한 기둥이 되고 있다.

2024년 전국 기준

산불 피해
724만 원 성금·성품
41,452개소 복구 활동
607명 참여

호우 피해
3,116만 원 성금·성품
311개소 복구 활동
7,897명 참여

태풍 피해
175만 원 성금·성품
13개소 / 418명 참여

방역 활동
9,679개소
56,809명 참여

함께의 이름으로, **새마을을 잇다**

새마을운동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새마을운동의 뿌리는 '함께'라는 정신에 있다. 그러나 그 '함께'는 단지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지역사회와 공공기관, 타 봉사단체와 손을 맞잡으며 실천하는 협력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 운동의 확장이며, 새마을운동의 진정한 가치다. 서로 다른 조직과 지역이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갈 때, 공동체는 더욱 건강해지고 구성원들은 더 깊은 신뢰로 연결된다. 이제 협력은 선택이 아닌,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수적인 길이며, 그 길 위에 새마을운동이 앞장서고 있다.

글. 편집실

연대의 힘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조성

온기나눔
범국민 추진본부(총 15개 기관)

새마을운동중앙회, 행정안전부, 대한적십자사회, (사)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단법인 한국모금가협회,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한국자원봉사포럼,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재단법인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학회, (사)한국자원봉사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오는 그 온기는 사회 전반에 스며든다. 새마을운동은 따뜻한 연대의 실천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손잡고 지역사회 구석구석에 온기를 전하는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해 새마을운동중앙회를 포함해 행정안전부, 대한적십자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등 15개 기관이 뜻을 모아 전국 207개 시·군·구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17개 시도에서 총 17만 명 넘는 이들이 참여한 대규모 사회적 연대가 이뤄졌다. 김장 담그기, 밑반찬 나누기, 집 고쳐주기, 홀몸 어르신과 경로당에 위문품 전달, 이미용 봉사, 방역과 헌혈, 농촌일손돕기 등 다양한 활동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다.

이러한 협력은 연대의 가치를 이뤘냈을 뿐만 아니라 마을과 마을이 이어지고, 세대가 연결되며, 국가와 국민이 함께 사회적 책임을 나누는 구조로 확장되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언제나 '함께'의 가치를 중심에 두어 왔으며, 기관 간 협력은 그 가치를 더욱 깊고 넓게 확장시키는 길이다. 이 길 위에 깃든 수많은 손길은 사회 전체에 지속 가능한 따뜻함을 더하고 있다.

함께 심는 나무, 함께 키우는 지속가능한 세상

전북 완주군새마을회
남북 그린데탕트 평화의숲
협력 캠페인

새마을운동은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대하며 시너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산림청이 지원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가 후원한 '남북 그린데탕트 평화의 숲 협력 캠페인'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전국 각 지역의 새마을(지)회가 팔을 걷어붙인 이 캠페인에는 서울을 포함한 9개 시도, 66개 시군구에서 4,800여 명의 새마을지도자들이 참여해 낙엽송과 스트로브잣나무 등 총 4만 7,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나무를 심으며 남북 협력의 물꼬를 틔우고, 긴장을 완화하며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다. 흙을 고르고 묘목을 심는 손길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과 평화에 대한 염원이 담겼다. 이 캠페인은 나무심기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 생태 복원, 나아가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염원하는 의미까지 담아낸 공동체 실천이자 국가적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적 실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름은 다르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다

충남 공주시새마을회 '고향사랑 빨래방'

각 지역의 새마을(지)회가 다양한 기관 및 봉사단체와 협력하며 공동체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행정기관, 자원봉사 단체, 민간 조직과 연대해 더욱 깊이 있고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했다.

올 여름 공주시에서 펼쳐진 '고향사랑 빨래방'은 이러한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다. 공주시새마을회와 공주시자원봉사센터가 손을 맞잡고,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돌봄과 정성을 전달하는 진정성 있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평군에서는 양평군새마을회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가 연대하여 다양한 나눔을 실천했다. 서종면협의회·부녀회와 적십자사 서종면 봉사회가 헌혈에 동참한 주민들을 격려하며 '헌혈증서 나눔 캠페인'을 진행했고, 양서면협의회·부녀회와 대한적십자사 양서면봉사회는 주택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집을 대상으로 합동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서로 다른 조직이 같은 마음으로 지역을 돌보고자 하는 진심이 담긴 연대의 실천이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꿈꾸는 세대 연대

대구광역시새마을회 'MZ세대와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최근 들어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MZ세대와 함께하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젊은 세대의 감각과 중장년층의 경험이 만나,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농촌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청년과 중장년이 함께 땀을 흘리는 모습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군 어르신들과의 시간을 공유하며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설계한다는 점이다.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를 경험했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이 경험은 새마을운동의 미래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청년과 대학생 등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이 협력하고 공감하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모습은 공동체 정신의 실천이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연대의 새로운 모습이다.

서로 다른 지역, 하나의 새마을정신으로 이어지다

서로 다른 지역이 하나의 뜻으로 손을 맞잡을 때, 그 만남은 '공동체의 확장'이라는 깊은 의미를 지닌다. 전국의 새마을(지)회는 물리적 거리를 넘어 마음과 정신을 잇는 진정한 연대의 길을 걷고 있다. 지난 6월 9일, 전라남도새마을회와 경상남도새마을회는 서로를 응원하고 협력하며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는 형식적인 약속이 아니라, 함께 걷고 대화하고 교류하며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실질적인 연대의 출발점이었다.

문고 대구광역시지부와 광주광역시지부는 문화로 이어진 특별한 우정을 나누고 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달빛동맹음악회'를 통해 두 지역 회원들은 시를 낭송하고 악기를 두드리며 책과 음악으로는 정서적 연대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교류는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상징을 넘어, 새마을운동이 사회 통합과 치유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 문고 청주시지부·증평군지부 등 다양한 조직들이 자매결연을 통해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을 실천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함께'라는 이름 아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모두가 연결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길을 열어갈 것이다.

문고 대구광역시지부·광주광역시지부 '새마을 한마음 콘서트'

동전 하나가 만든,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기적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힘찬 동행, 동전의 기적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전국의 새마을지도자들이 마음을 모아 추진한 '힘찬 동행, 동전의 기적'은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그대로 보여준 사업이었다. 216개 시군구, 2,621개 읍면동에서 모인 동전은 무려 3억 5,447만 원 규모에 달했다. 한뜻, 한 마음으로 집 안 어딘가에 무심코 방치돼 있던 동전들을 하나하나 모아낸 결과다. 이 놀라운 성과를 이뤄낸 동전 모으기 운동은 무엇보다 '함께'였기에 가능한 여정이었다.

글. 장희주 **사진.** 김병구

(왼쪽부터) 박창덕 전라남도협의회장, 양윤호 중앙협의회장, 최영식 울산광역시협의회장

Q. '힘찬 동행, 동전의 기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양윤호 중앙협의회장 • '힘찬 동행, 동전의 기적'은 오래전부터 고민해 왔던 일입니다. '잠들어 있는 동전이 국익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숨어 있는 동전을 우리가 직접 찾아보자'는 마음으로, 제가 임기를 시작한 작년 하반기부터 바로 추진했어요. 시행착오도 정말 많았지만, 결국 모두의 힘으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양윤호 중앙협의회장
전국 18개 시도, 228개 시군구, 3,200여 개 읍면동의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를 이끌고 있으며,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양한 실천과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박창덕 전라남도협의회장
22개 시군, 약 17만 명의 새마을지도자가 활동 중인 새마을지도자전라남도협의회를 이끌고 있으며, '동전 모으기 운동'을 통해 읍면동까지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최영식 울산광역시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울산광역시협의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만든 큰 감동을 '동전 모으기 운동' 사업으로 이끌고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지역사회 기부와 나눔으로 확장시켰다.

Q. 지역별로 동전 모으기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했나요?

박창덕 전라남도협의회장 • 제일 먼저 읍면동 지도자님들 댁부터 하나하나 돌았어요. 집 안에 굴러다니던 자투리 동전부터 모으기 시작했죠. 노인정이며 면사무소도 직접 발로 뛰어 찾아다녔고요. 그렇게 다 함께 마음을 보태다 보니, 전남에서만 약 6,400만 원어치나 되는 동전이 모였어요.

최영식 울산광역시협의회장 • 각 가정에서 한 푼, 두 푼 정성껏 모아주신 동전들도 있었고요, 일부는 외부 단체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협찬해 주셨습니다. 울산은 시군구 자치단체가 많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모인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주민들께서 10원짜리, 50원짜리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모아주신만큼 그 마음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양윤호 중앙협의회장 • 정말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게 큰 힘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회원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움직여주시지 않았으면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 사업이 정말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마음을 모았기에 가능했던 소중한 성과였고, 앞으로도 이런 협력이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Q.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박창덕 전라남도협의회장 • 손주 저금통에 있는 동전까지 꺼내 모아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 댁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동전을 하나하나 직접 세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방 안에서 사진으로도 남기셨다는데 참 인상 깊었죠. 그런 걸 보면 이게 단순히 동전만 모으는 일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자연스럽게 정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최영식 울산광역시협의회장 • 울산은 각 구·군에서 모은 동전을 먼저 모아 계수만 하고, 그 금액을 다시 각 구·군에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했어요. 그런데 정말 감동적이었던 건 몇몇 구·군에서 '저희는 안 받아도 됩니다. 좋은 일에 써주세요'라고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은 그 돈으로 불우이웃을 도왔고, 또 어떤 곳은 기부로 이어지기도 했죠.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정말 크고 값졌다고 생각합니다.

양윤호 중앙협의회장 • 무엇보다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전국에서 집계된 동전 모으기 결과를 받아봤을 때였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혹시 참여가 저조하면 어쩌지' 하고 걱정도 좀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과를 확인해 보니,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였죠. 지도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정성과 열정을 쏟아주셨는지가 숫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결과였고, 그 순간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조직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Q. 모은 금액은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가요?

양윤호 중앙협의회장 • 모아진 금액은 각 지역 새마을협의회의 사업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돕는다든지, 청소년 안전 활동이나 환경 정화처럼 필요한 일들에 직접 쓰일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건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현장 중심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에요.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스스로 해결하면서, 공동체 의식도 함께 되살리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룬 점이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 및 시·도 협의회장단

Q. 이번 사업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정신이나 철학이 살아있다고 느낀 부분이 있나요?

박창덕 전라남도협의회장 • 이번 동전 모으기 활동을 통해 새마을지도자들이 보람 있는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무엇보다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서로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단합되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함께할 수 있다'라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었던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최영식 울산광역시협의회장 • 이번에는 중앙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부녀회나 다른 조직들도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조직이 한마음으로 움직인다면 그게 바로 새마을운동이 지향하는 '함께하는 정신'이 아닐까요? 그렇게 함께한다면 사업도 훨씬 더 풍성해지고, 그 안에 담긴 의미 역시 더 깊어질 거라 믿습니다.

양윤호 중앙협의회장 • 저는 새마을운동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동전 모으기를 통해 한 분 한 분이 보여주신 작은 노력,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신념이 모여 이렇게 큰 성과를 만들어냈잖아요. 그 믿음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의 진짜 힘이고, 새마을운동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이번 활동을 마무리하며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박창덕 전라남도협의회장 • 양윤호 회장님이 오신 이후로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발상과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동전 모으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됐고, 지금은 2차로 회원 배가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도자분들도 다시금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고요. 저는 이런 선순환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믿어요. 회장님의 리더십 아래에서 새마을운동이 더 크게 발전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길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영식 울산광역시협의회장 • 올해 첫 시도였던 만큼 '내년부터는 더 제대로 해보자'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어요. 내년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관심도 훨씬 커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동전을 운반하거나, 모으는 과정이 조금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씩 개선해 나가다 보면 이 사업이 앞으로 더 잘 자리 잡고 훨씬 더 의미 있게 이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양윤호 중앙협의회장 • 처음에는 솔직히 힘들고 버거운 순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건 모두가 마음을 모아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기적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나'보다는 '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모두와 함께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길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손을 잡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가면서, 새마을운동을 더 아름답고 빛나는 길로 함께 이어가길 바랍니다.

마음을 모은 한마디

숨은 동전 찾아내기를 통하여 세상에 나오듯이 새마을이 함께하면 역사가 되고 세상이 밝아집니다. 모두 함께합시다.
윤종희 서울특별시협의회장 •

잘 사용하지 않는 동전의 가치를 모음으로써 이웃과 국가에 도움이 되고, 새마을가족들의 협동심도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김수현 대구광역시협의회장 •

눈에 보이지 않던 재원을 찾아 경제적, 사업적 가치를 높였습니다. 이런 시각적 변화를 통해 새마을지도자들의 위상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박진원 광주광역시협의회장 •

작지만 크다! 작은 동전을 소중히 아끼고 모으니,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뜻깊은 사업이었습니다.
원광희 세종특별자치시협의회장 •

작은 가치의 동전도 모으면 큰 가치가 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런 교훈을 깨달을 수 있게 성심을 다한 강원 새마을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백상원 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장 •

단순한 참여를 넘어, 함께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를 주도한 충남협의회 회원님들의 열정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갑복 충청남도협의회장 •

작은 동전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경상북도 22개 시군의 따뜻한 마음이 희망을 전하는 나눔의 씨앗이 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전했습니다.
조성현 경상북도협의회장 •

숨어 있던 동전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며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새마을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변봉남 제주특별자도협의회장 •

작은 노력이 모이면 큰 기적이 만들어진다는 몸소 배운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이웃에게 잘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정태 부산광역시협의회장 •

동전 모으기를 통해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함께한 모든 분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윤영학 인천광역시협의회장 •

새마을은 감동입니다. 동전의 기적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함께한 대전 시민분들과 새마을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경원 대전광역시협의회장 •

힘찬 동행, 동전의 기적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함께 모은 정성으로 3,112만 원의 기적을 만든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김맹수 경기도협의회장 •

곳곳에 잠들어 있던 작은 동전들이 모여 큰 사랑이 됐습니다. 이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이 된다는 생각에 정말 뿌듯합니다.
우태근 충청북도협의회장 •

새마을 정신으로 동전을 모아준 정성에 감사합니다. 동전 모으기에 쏟아준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온기 나눔 사업에 잘 사용하겠습니다.
박용운 전북특별자치도협의회장 •

우리가 모은 동전은 그 액수보다 몇 배나 더 큰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묵직한 무게감과 함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최만환 경상남도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또 한번 새마을지도자들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가 위기에 직면하면 새마을운동의 저력을 함께 보여줍시다!
마영휘 이북5도협의회장 •

함께 고치고 함께 사는 마을

그림. 전선진

낡은 지붕을 고치고, 벽에 페인트를 새로 바르며, 오래된 삶터에 따뜻한 손길을 더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집수리를 넘어, 이웃의 삶을 보듬는
공동체 실천입니다. 한 채의 집이 새로워질 때, 그 안에 사는 이의 삶도 함께 따뜻해집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작은 손길이 모여 피어나는 변화의 시작이자,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더 따뜻하게 채워가는 소중한 디딤돌입니다.

새벽종 퀴즈

Q. 집을 고치고 있는 사람 중 안전모를 쓴 사람은 몇 명일까요?

① 6명 ② 4명 ③ 2명

← QR코드를 스캔한 후 정답을 맞춰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양재천이 잇는 새마을정신, **미래로 이어가는 가치**

서울 강남구새마을회

1975년 설립된 강남구새마을회는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살기 좋은 강남'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탄소중립을 위한 나무와 꽃 심기,
새마을 대청소, 그리고 양재천을 가꾸는 정화와 방역 활동까지….
이들의 노력이 오늘의 강남을 만들어 왔고,
그 열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글. 윤민지 **사진.** 홍승진

2025 새마을방역봉사대, 양재천에서 힘찬 출발!

지난 6월 9일, 초여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서울 강남구 양재천의 밀미리다리 인근은 이른 아침부터 활기로 가득했다. 강남구새마을회가 주최한 '2025 새마을방역봉사대 발대식 및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새마을 양재천 정화활동'이 열린 날이었기 때문이다. 행사는 강남구 청년새마을연대 부회장인 문정원 아나운서의 생기 넘치는 진행으로 문을 열었다. 구룡초등학교와 포이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사, 조성명 강남구청장, 이호기 강남구의회 의장, 김영재 서울시의회 의원 등 250여 명이 함께 자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종선 강남구새마을회장은 "25년간 활동하면서 어린이들과 함께한 건 처음입니다. 윤상태 협의회장을 비롯해 구청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방역 차량 확보와 발대식이 가능했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날 새마을방역봉사대 발대식에는 방역 차량 6대와 40여 명의 봉사대원이 참여했고, 앞으로 강남구 곳곳에서 공원과 하천에 방역 활동을 펼치게 된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양재천 정화활동에 참여한 어린이 대표들이 당당하게 결의문을 낭독하는 모습이었다. "양재천을 깨끗하게, 동식물을 보호하고 물을 아껴 쓰겠다"는 어린이들의 약속은 현장에 있던 모두에게 잔잔한 울림을 전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한마음으로 가꾼 양재천

새마을방역봉사대 발대식을 마친 뒤 양재천 정화활동이 이어졌다. 양재천은 강남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 강남구는 이곳의 생태를 자연 그대로 보존하며 관리하고 있다. 풀과 나무를 심고, 학생들이 직접 모를 심으며 자연을 가까이서 느끼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강남구새마을회도 양재천을 모두가 아끼고 가꿔야 할 소중한 공간으로 여기며, 적극적으로 정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이 활동에 동참하도록 지원하여, 자연 보호의 중요성과 봉사의 참된 가치를 몸소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은 EM(유용미생물군) 흙공 던지기와 미꾸라지 방류, 하천 쓰레기 수거 등이 함께 진행됐다.

어린이들과 새마을지도자들은 양재천 주변과 다리 위에서 '하나, 둘, 셋!' 힘찬 구령에 맞춰 맑은 물길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힘차게 EM흙공을 물속으로 던졌다.

다음은 미꾸라지를 방류할 차례. 미꾸라지 한 마리는 1,000마리 이상의 모기 유충을 잡아먹고 하천 바닥을 파헤치는 습성이 있어 물속의 산소를 순환시켜 정화에 도움을 준다. 어린이들은 작은 바가지에 미꾸라지를 담아 조심스레 양재천으로 옮겼고, 어른들

> "세대가 어우러져 자연을 지키는 뜻깊은 발걸음"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은 장화를 신고 하천 속 쓰레기를 하나하나 수거하며 깨끗한 양재천 만들기에 나섰다.

박조연 부녀회장은 어린이들에게 “EM흙공은 미생물들이 물을 정화시키는 것을 돕고, 미꾸라지들은 물속에서 해충을 잡아먹으며 살아갈 것이라고 설명해주니 아이들이 신기해하고 좋아했다”라며 현장의 생생한 반응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단순히 정화활동에 그치지 않고,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생명 존중, 공동체의 가치를 일깨우는 기회가 됐다.

윤상태 협의회장도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양재천 정화활동을 통해 꿈나무들에게 ‘새마을운동’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다”며 이날 행사의 의의를 전했다. 이를 위해 양재천 인근에 소재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했고, 정화활동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에게 자연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심어주고자 어린이용 새마을조끼 200벌도 특별히 제작했다.

하반기에는 중학생까지 참여 대상을 넓히고, 양재천 정화활동을 3차례 더 진행할 계획이다. 말을 이어가던 윤 회장은 자신의 유년시절을 회상하며 “새마을운동을 통해 마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희 아버지도 당시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하셨지요. 오늘 아이들이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한 경험은 훗날 새마을운동을 대하는 태도에 분명한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라고 전했다. 그는 “지금의 강남처럼 바쁘고 복잡한 도시에서도 공동체 정신은 여전히 소중하다”며, 세대가 함께 이어가는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
> **자연의 소중함,**
> **생명 존중,**
> **공동체의 가치를**
> **일깨우는 기회**
> ”

한편, 강남구새마을회는 환경정화뿐 아니라 방역 활동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지원한 방역 차량 3대와 강남구에서 확보한 3대를 포함한 총 6대의 방역 차량을 갖추게 됐다. 이 차량들은 한동안 차량 노후화로 방역활동을 중단했던 아쉬움을 씻어내고, 다시금 활기찬 활동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40여 명의 방역봉사대원이 새벽과 오후로 나뉘어 강남구 130여 개 공원에서 방역을 진행한다. 윤상태 협의회장은 “방역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새마을운동의 정신과도 꼭 맞습니다”라며, 방역활동이 자원봉사로 이뤄지는 만큼 지자체 예산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강남구 새마을방역봉사대는 매일 단체 채팅방을 통해 활동사진을 공유하고, 그날의 활동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다. 이 자료들은 구청의 예산 신청과 향후 사업 계획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일부 학교에서는 방역을 직접 요청할 정도로 새마을방역봉사대는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신뢰와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함께’라서 가능했던 변화

강남구새마을회는 환경뿐 아니라 공동체의 온기까지 품고 있다. 홀몸 어르신을 위한 김장 나눔부터 여름에는 계절김치 전달, 농촌 일손 돕기, 직거래 장터 운영, 월 16회 이상의 방역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실천 중이다.

오는 11월에는 대규모 김장 담그기가 예정돼 있다. 이 모든 활동은 강남구새마을회, 협의회, 부녀회가 함께한다. 윤상태 협의회장은 “이종선 회장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임원들이 자연스럽게 협력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모든 것을 함께하다 보니 예전보다 소통이 더 활발해졌고, 지도자들 간의 벽도 허물어졌다.

박조연 부녀회장은 새마을운동을 하며 많은 변화를 겪었다. “구민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자부심이 생겼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졌습니다. 협의회와의 소통 역시 부녀회 활동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 강남구새마을회 이사는 “어릴 적 새마을운동의 기억으로 강남구새마을회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새마을회는 앞으로도 서울시의 모범 단체로서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함께’라는 이름으로 ‘새마을’이라는 정신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다.

“우리 동네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책으로 잇는 마을의 온기**

제주 서귀포시
신머들새마을작은도서관

푸른 바다가 춤을 추는 제주도에서 새마을문고 제주 서귀포시지부(회장 송춘화)가 주최하고 대륜동분회 신머들새마을작은도서관(회장 김영실)이 주관한 ‘2025 독서퀴즈 한마당’이 열렸다. 제주 서귀포시의 매력을 가득 담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세대를 초월한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글. 최해진 **사진.** 한용환

돌무더기 위에 핀 새마을작은도서관

제주 서귀포시 HausD블루오션 207동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자리 잡은 ‘신머들새마을작은도서관’. 오전 내내 매섭게 몰아치던 비바람이 오후가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자취를 감췄다. 흠뻑 젖어 있던 야외 광장은 강렬한 햇살 아래 금세 바짝 말랐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행사가 무산될까 노심초사하던 새마을 회원들의 얼굴에도 서서히 안도의 빛이 번졌다.

새마을문고 제주 서귀포시 대륜동분회 회장이자 신머들새마을작은도서관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실 회장은 행사 준비로 분주한 회원들을 다정하게 격려하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지금의 도서관 이름은 ‘돌무더기’를 뜻하는 제주 방언 ‘머들’에서 따왔다. 이름처럼 한때 사람보다 돌이 더 많던 이 마을은 여러 관공서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며 어느새 신시가지로 탈바꿈했다. 제주 토박이보다 육지에서 온 외지인이 더 많아진 이곳. 제주를 잘 모르지만 알아가고 싶은 사람들, 육지의 인연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 함께 나누는 지적 교류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바람이 새마을문고 서귀포시지부에 닿았다. 그렇게 신머들새마을작은도서관이 아파트 숲 사이에 문을 열게 됐다.

도서관은 2018년 12월에 문을 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3년간 운영을 멈춰야 했다. 긴 공백 끝에 2023년 5월, 재개관을 앞두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에 김영실 회장이 처음 발을 들였다. 거미줄이 얽혀 있던 건물과 수기로 남겨진 기록들 앞에서 막막함이 밀려왔지만, 서귀포시지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됐다. 건물 개·보수와 함께 독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받을 수 있었고, 김 회장은 회원 두명과 함께 도서 목록과 대출 기록을 모두 디지털화했다. 새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기반도 갖췄다.

제2의 집처럼 머물고 싶은 도서관

서울에서 살았던 김영실 회장도 은퇴 후 제주도에 정착한 이주민이다. 이웃들과 같은 사연을 품고 이 섬에 뿌리내렸기에, 주민들이 도서관에서 어떤 경험을 찾고 싶어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 최남단 도시가 서귀포시입니다. 지리적 특성상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의 중심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밖에 없는 곳이에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챗GPT 다가가기’ 강의, 발레 강사를 초청해 간단한 동작을 배워보는 ‘책과 함께하는 발레 스트레칭’ 수업, ‘길따라 물따라’처럼 서귀포의 물길을 따라 동네를 탐방하며 이주민에게 제주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주민에게는 제주를 소개하고, 원주민에게는 세상을 소개하는 그런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과거의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보관하고 대출하던 ‘지식의 창고’였다면, 지금의 신머들새마을작은도서관은 문화와 삶이 오가는 ‘소통의 마루’로 확장되었다. 보통 도서관이 정숙을 요구한다면, 신머들새마을작은도서관에서는 마음껏 떠들며 토론할 수 있다. 안락의자가 놓인 3개의 방에서는 책을 읽다가 졸리면 눈을 붙일 수

독서퀴즈대회 우승자 서호초등학교 3학년 주연서 어린이(오른쪽)와 부모 주한기 씨

도 있고,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도 있다. 주방과 식탁도 갖춰져 있어 출출하면 간단한 식사도 가능하다. 신머들새마을작은도서관은 책을 읽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저 마음 편히 들렀다 갈 수 있는 모두의 쉼터를 지향한다.

그럼에도 이날만큼은 도서관에 적잖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학부모와 어린이들은 독서퀴즈 한마당을 앞두고 출제 도서인 동화책 〈고래굴의 비밀: 신비의 섬 제주로 떠난 모험〉을 반복해 읽으며 서로 문제를 내고 맞추는 연습에 몰두했다. 제주 출신인 박재형 작가가 쓴 이 책은 제주도 전설과 설화를 모티브로 삼아, 제주의 풍습과 방언까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 교육적이다. 이날 작가와의 만남 행사에 참석한 박 작가는 "이 책이 독서퀴즈 한마당의 지정 도서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며 "오늘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 모두 훌륭한 우리나라의 인재로 성장하리라 믿는다"고 따뜻한 응원의 말을 전했다.

함께라면 무엇이든 가능한 봉사의 힘

신머들새마을작은도서관에서 열린 '독서퀴즈 한마당'에는 보호자와 아이로 구성된 19팀이 참가했다. 치열한 예선을 뚫고 상위 6팀이 본선에 올랐으며, 100문제를 모두 풀 때까지도 승부가 나지 않을 정도로 막상막하의 접전이 이어졌다. 마침내 단 한 팀이 마지막 골든벨 문제를 단숨에 맞히며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고, 참가자들과 도서관 회원들은 아낌없는 박수로 그 순간을 함께 축하했다.

퀴즈대회에 이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도서관 앞 광장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투명한 부채 위에 스티커를 붙이고 그림을 그려 나만의 여름 부채를 만드는 체험, 재활용 유리병에 식물과 자갈을 담아 만드는 친환경 반려식물 화분 만들기, 고래와 나비를 얼굴에 그려주는 페이스 페인팅, 아크릴판에 직접 그림을 그려 나만의 무드 조명을 만드는 코너들로 구성된 체험 프로그램들이 어린이들의 눈빛을 반짝이게 만들었다.

맞은편 광장에서는 아이들의 "한 번 더!" 외침이 끊이지 않았다. 돌림판을 돌려서 나오는 항목대로 가위바위보, 주사위 던지기, 바구니에 공 넣기 게임 등을 진행자와 겨루고 이기면 상품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었다.

무엇보다 이런 즐거운 축제엔 먹을거리 부스가 가장 큰 인기다. 토스트, 소떡소떡,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코너는 문전성시였다. 한편에서는 안 쓰는 생활용품과 도서를 나누는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장터가 열렸다.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김영실 회장은 회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도서관에 오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고, 어느새 자원봉사로 이어지곤 해요. 이렇게 큰 행사가 있을 때면 흔쾌히 도와주셔서 늘 든든하죠.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이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주셔서 모든 일이 순조로웠습니다.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시작된 하루의 축제는 이렇듯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마을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비록 짧은 하루였지만, 그 속에는 함께 웃고, 나누고, 돕는 공동체의 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신머들새마을작은도서관은 앞으로도 사람들의 일상에 소소하지만 깊은 감동을 더하는 제2의 안식처로 머물 것이다.

> "소소하지만 깊은 감동을 더하는 제2의 안식처"

독서퀴즈대회 시작 전 인사말과 함께 격려를 보내는 박재형 작가

일손 돕기 그 이상,
함께 흘린 땀의 가치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상지대·강원대 새마을동아리

지난 6월 26일, 평소 한적하던 원주시 신림면 · 귀래면과 강원도 화천군 일대가 뜻밖의 활기로 가득 찼다.
상지대·강원대 새마을동아리 학생 100여 명이 참여한 '대대손손 농가 돕기–건강 새마을 가꾸기' 봉사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이어진 일정 속에서,
학생들은 양파와 감자 수확이 한창인 들녘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바쁜 손길을 보탰다.

글. 김광균 **사진.** 전경민

상지대학교 새마을동아리
부회장 홍수빈

상지대학교 새마을동아리
회장 임재영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와 함께 상지대학교 새마을동아리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임재영: 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2학번 임재영입니다. 현재 총학생회장과 새마을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상지대 새마을동아리는 지난해 결성된 신생동아리지만, 현재 회원수가 약 160명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어요. 전국 새마을동아리 중에서도 가장 많은 회원을 자랑합니다. 강원도 원주가 도농복합 지역이다 보니 농촌 현장에서 직접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저희는 신림면, 호저면, 귀래면 등 인근 농촌 지역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 경로잔치 음식 나눔, 어르신 나들이 동행 같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수빈: 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제약바이오학과 23학번 홍수빈입니다. 저는 총학생회 봉사장려국장이자 새마을동아리 부회장을 맡고 있어요. 동아리 내에서는 주로 농촌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전체 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주기적으로 봉사활동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Q. 상지대학교 새마을동아리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임재영: 대부분의 대학 새마을동아리는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나 회원 모집, 활동 기획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저희 상지대 새마을동아리는 총학생회 산하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예산 조달이나 활동 인원 모집 같은 부분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덕분에 규모 있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것도 큰 강점입니다.

Q. 대학 새마을동아리에 참여하기 전, '새마을운동'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나요?

임재영: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면 197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시절,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던 운동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특별히 뚜렷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기보다는 그런 역사적 배경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홍수빈: 사실 저도 동아리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새마을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새마을동아리와 총학생회 활동을 병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새마을운동의 의미를 알게 됐고, 실제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점점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Q. 올해 활동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임재영: 올해에는 농촌 일손돕기 활동에 더욱 집중하고 있어요. 일손돕기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폭넓

게 기획해보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농촌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실제로 많은 농가들이 일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저희처럼 젊은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면 지역사회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상지대학교에는 농업대학이 있어 농업 관련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이런 학과적 특성을 살려 농업 전문 지식을 봉사와 접목시키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Q. 이번 활동의 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임재영: 이번 농촌 일손돕기 활동은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대학과 농촌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총학생회 차원에서 방학 기간 중 농촌 봉사를 기획하던 중 새마을동아리와 연계하면 보다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 함께 추진하게 되었어요. 이번 활동에는 상지대 학생 96명이 참여했고, 강원대학교 학생 10명도 일부 일정에 함께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봉사를 넘어 대학 간, 지역 간 연대의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Q. 2박 3일 일정 동안 농가 일손 돕기부터 마을 어르신 족욕, 마사지, 산책까지 정말 다채로운 활동이 준비됐는데요. 이번 활동을 위해 어떤 준비를 했나요?

임재영: 이번 활동을 위해 먼저 화천군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원주시새마을회와 화천군새마을회와 함께 정기적인 회의를 열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봉사 시간 인정 등 실질적인 혜택도 마련했어요. 무엇보다 원주시새마을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총학생회 예산이 더해져, 총 2,9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덕분에 전체 준비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Q. 농촌에서의 활동 이틀째인데요. 지금까지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요?

홍수빈: 사실 어제는 비가 내려서 계획했던 봉사활동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어요. 다행히 오늘은 날씨가 개어 예정된 활동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남은 시간 동안 더 보람찬 하루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새마을동아리원으로서 현재 농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임재영: 현장에서 직접 느낀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단연 일손 부족이에요. 농가는 작물 수확과 출하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일할 사람이 부족해 제때 작업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확한 농작물을 원활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도 절실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일정 물량을 미리 수매해주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농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더해진다면, 농촌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Q. 아직 일정이 더 남아 있는데요. 이후 일정 중 기대되는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홍수빈: 내일은 원주시 귀래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족욕과 마사지, 화장, 둘레길 산책을 도와드리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요. 직접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봉사를 넘어서, 함께 웃고 대화 나누는 순간을 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Q. 이번 활동을 통해 새마을동아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임재영: 이번 농촌 봉사활동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학생들이 농촌의 현실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트에 진열된 농산물이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땀과 수고를 거쳐 온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직접 느껴본다면, 우리의 일상 속 소비도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Q. 앞으로도 새마을운동이 잘 보존되고 젊은 세대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임재영: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에 활발히 펼쳐졌던 만큼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대학 새마을동아리들이 이 운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에 보답하듯 지역 사회와 이웃을 위한 활동을 더욱 열심히 펼쳐나가야겠지요. 새마을운동이 도시와 농촌, 청년과 어르신 모두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계속해서 기여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ini-Interview

고된 땀방울 속 피어난 보람

– 최인태 강원대학교 새마을동아리 회장(사회과 4학년)

원주시새마을회·상지대학교 새마을동아리와 함께한 이번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은 저에게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이번 봉사활동은 현장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몸은 고됐지만, 많은 새마을가족과 함께 땀을 흘리며 일하니 오히려 마음은 더 뿌듯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강원대학교 새마을동아리 회원들과 함께한 첫 공식 활동이 이렇게 값지고 따뜻한 시간이어서 더욱 의미 있었어요.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상생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활동들을 꾸준히 기획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 가는 강원대학교 새마을동아리,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새마을운동으로
자립의 첫걸음을 내딛다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4년 차 국가 도미니카공화국

4년 전 식수조차 구하기 어려웠던 도미니카공화국 농촌 마을에 새마을운동이라는 씨앗이 뿌려졌다.
주민들은 손을 맞잡고 변화를 일궈내기 시작했고, 이제는 자립까지 꿈꾸는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함께 바꾸는 마을, 우리의 힘으로 지속되는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도미니카공화국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글. 이원복 **사진.** 김병구

Q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또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계기도 궁금합니다.

마누엘 세스페데스_ 저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서쪽 끝에 자리한 '사바나 이게로'구의 구청장입니다. 우리 지역은 매우 가난했고, 식수조차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던 4년 전, 새마을협력관을 통해 처음으로 새마을운동을 알게 되었고 다행히 우리 마을이 시범마을로 선정되는 기회도 얻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데이비 피멘텔_ 저는 '사바나 라르가' 마을에 사는 청년이자, 교사입니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새마을운동에 함께하고 있고요, 학생들에게도 새마을운동의 개념을 알려주거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새마을운동을 경험시키고 있습니다.

Q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이후 어떤 성과를 이뤄왔나요?

마누엘 세스페데스_ 무엇보다 주민들, 특히 청년들의 참여가 활발해졌어요. 마을 개발 사업에 누구보다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덕분에 지역이 다방면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댐과 저수지를 설치하면서 수자원을 확보했고, 농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데이비 피멘텔_ 맞습니다. 청년이 중심이 되어 주민들이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변화죠. 예전에는 마을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이후 직접 변화를 체감하면서 사람들의 의지도 점점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방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Q 지금은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누엘 세스페데스_ 지금은 마을 공동 장례식장을 준비 중입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이고, 협의가 잘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수와 농업용수 등 수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앞으로 관련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이고, 마을 안길 정비 역시 꾸준히 이어갈 생각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지원 없이 우리 지방정부의 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테니까요. 우리의 힘만으로 이뤄낸 변화는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 눈부시게 바꿔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데이비 피멘텔_ 사바나 라르가에서는 아보카도 묘목장과 저수지 건설에 이어 양계장 사업도 진행했어요. 올해 마무리될 예정이라 기대가 큽니다. 덧붙이자면 앞으로 커피 묘목장 조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지원은 물론 환경부, 농림부 그리고 여러 교육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죠. 많은 기관과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새마을운동에 참여해 더 멋지고 풍요로운 삶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이번 초청 연수에 참여한 소감도 말씀해 주세요.

마누엘 세스페데스_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새마을운동에 힘쓰는 모든 새마을지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 마을이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고, 더 나은 삶에 대한 확신도 품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나안 농군학교를 방문했던 경험이 깊이 남습니다. 농사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립심과 공동체 정신에 관해 배운 것이 앞으로 마을을 이끌어가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데이비 피멘텔_ 모든 게 신기했어요. 환경 개선 사업이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꿀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의 소득증대로 이어진다는 강의가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과거 대한민국이 농업에 의존했다는 점, 국토의 70%가 산지라는 점 등이 여러 면에서 우리 지역과 비슷하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새마을운동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룬 훌륭한 사례가 있는 만큼, 저희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열심히 새마을운동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주요 추진 사업

농기구 보관소(외부)

아또 마요르

- **효율적인 묘목장 운영**
  - 1차 무상 제공 후 참여율에 따라 묘목 분배
  - 농기구보관소, 종자보관소, 차양막 설치 등

아보카도 묘목장

사바나 라르가

- **농업용수 관개 사업지 이전 및 양계사업**
  -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아보카도 생산량 증대
  - 양계사업으로 주기적인 소득 창출

커피 묘목장 및 플랜테인 재배

로스 까까오스

- **농업용수 관개사업**
  - 묘목 재배를 위한 농업용수 관개사업
  - 사업비 일부로 취약계층 2가구의 주택 보수 계획

저수지 확장을 위한 현지 회의

사바나 물라 바니카

- **신규 사업**
  -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 확장 사업 추진

새마을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미래를 만들다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2년 차 국가 온두라스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새마을운동이 온두라스의 농촌 마을에도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며 자립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으며,
소득이 늘고 생활 인프라도 하나둘 갖춰지는 등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온두라스의 변화,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글. 이원복 **사진.** 김병구

Q.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새마을운동을 도입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호수에 아벨라르_ 저는 온두라스의 국가기관인 농촌개발부(PRONADERS)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농업 소득 증대와 효율적인 농업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그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온두라스의 농촌은 빈곤율이 높은 곳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새마을운동을 도입했죠. 그 계기는 새마을운동 초청연수에 먼저 참가했던 동료 덕분인데요.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끈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성과를 온두라스에도 적용해보자는 결심이 지금의 시작이 된 것이죠.

Q. 온두라스의 농촌 지역이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호수에 아벨라르_ 저희는 현재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빈곤이 반복되다 보니 생활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져 있습니다. 어쩌면 온두라스 전체가 겪는 공통된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그 흐름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이행하고 관리하면서 스스로 성장하고 있죠. 가장 큰 변화는 자립심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외부의 지원만 바라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사업을 구상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Q.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었나요?

호수에 아벨라르_ 마을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도 진행됐는데요, 그중 '엘 오코탈' 마을에서는 농산물 상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마을은 유제품이나 곡물 등이 많이 생산되지만, 시장이 멀어서 상품을 제대로 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마을 안에 마련된 상점을 통해 직접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농자재까지 함께 취급하면서 주민들의 일상도 편리해졌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먼 길을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Q. 초청연수를 통해 다양한 강의를 듣고 현장을 견학했는데요.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호수에 아벨라르_ 모든 강의와 현장 견학이 의미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대한민국이 한국전쟁 이후 황폐해진 국토를 어떻게 복구하고, 새마을운동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어 낸 과정을 소개한 강의였습니다. 특히 새마을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여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잘 새겨서 온두라스의 새마을운동을 성공으로 이끌겠습니다.

Q. 초청연수를 마치고 온두라스에 돌아가면 앞으로의 어떤 일을 수행할 계획인가요?

호수에 아벨라르_ 초청연수에서 배운 것을 온두라스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선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으며, 어떤 성과를 이룰지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연수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종합해 온두라스 농촌 지역의 소득 증대와 보다 효율적인 농업 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주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호수에 아벨라르_ 지금처럼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의 주민들이 자립심을 갖고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간다면,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온두라스의 미래는 시범마을의 주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 역시 공무원으로서 국가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두라스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주요 추진 사업

농산물 상점 사업 예정 건물

엘 페드레갈

- **농산물 상점 설립**
  - 사용하지 않는 학교 건물 및 부지 활용
  - 여성을 위한 가공시설(베이커리)도 별도 마련

농산물 상점 사업지 건물 외관

엘 오코탈

- **농산물 상점 설립**
  - 마을 내에서 생산되는 과일, 곡물 등 판매 예정

보건소 설립 사업부지

엘 로데오

- **마을 인근에 보건소 설립**
  - 멀리 가지 않아도 백신을 맞을 수 있음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용이

원두 가공시설 예정 부지

엘 세로(보카델몬데)

- **커피 원두 건조 및 가공 시설 마련**
  - 원두 건조와 분쇄에 필요한 설비 마련
  - 커피 가공으로 얻을 기대 수익은 연 4만 달러

푸른 여름날, 새마을가족의 마음에 응원의 바람이 불어오다

햇살은 짙어지고, 나무는 더욱 푸르러지는 여름. 무더운 계절 속에서도 새마을가족의 응원의 말은 시원한 바람처럼 마음에 스며듭니다. 짧은 인사, 작은 칭찬 한마디가 지친 마음에 시원한 쉼이 되어 다가옵니다.

협의회

새마을조직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의 구심체인
윤영학 인천광역시협의회장님을 칭찬합니다.

윤영학 협의회장님은 2021년 인천 연수구협의회장과 2023년 인천광역시협의회장을 역임하며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와 효사랑 어르신 섬김 봉사활동, 소외이웃 반찬나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새마을줍깅 등 지역사회의 현안 해결과 주민들의 고충 해결에 앞장섰으며, 탁월한 추진력으로 관내 군·구회장 및 새마을지도자의 화합을 이뤄냈습니다.

From_ **박용운** 전북특별자치도협의회장

'새벽종이 울렸네~' 새마을노래는 우리 국민의 땀과 헌신이 담긴 노래이자, 새마을정신입니다. 새마을운동의 뿌리 역시 우리 삶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로를 살피고 함께 나아가려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그 뜻을 실천하겠습니다.

_**윤영학** 인천광역시협의회장

부녀회

따뜻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는
최경옥 전라남도부녀회장님을 칭찬합니다.

최경옥 회장님께서는 소통과 나눔 정신으로 전라남도새마을부녀회 어울마당을 주도적으로 개최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양성평등에 기여한 남편들에게 외조상을 시상함으로써 부녀회원들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또한 지역 밀착 네트워크를 통해 다자녀 가정 및 복지사각지대 아동 가정을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역공동체의 행복에 앞장섰습니다.

From_**곽영순** 경상남도부녀회장

전라남도부녀회가 이뤄낸 모든 일은 회원 여러분의 열정과 지역사회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소통과 나눔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고, 그 마음이 모일 때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낸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공동체의 온기를 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_**최경옥** 전라남도부녀회장

직장·공장협의회

어려운 이웃을 도와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드는
이천용 충청남도 청양군 직장·공장협의회장님을 칭찬합니다.

지역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천용 협의회장님을 칭찬합니다. 매년 지역 내 어려운 가정 10곳 정도를 선정해서 가족사진을 찍어주고, 어려운 홀몸 어르신 가정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청년새마을연대와 함께 홀몸 어르신 돌봄 운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손길을 이어가시길 응원합니다.

From_**이창** 충청남도 서산시 직장·공장협의회장

좋은 말씀과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한 작은 일들을 이처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먼저 돌보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_**이천용** 충청남도 청양군 직장·공장 협의회장

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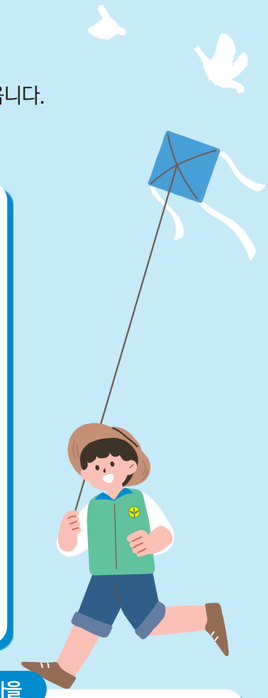
품격 있는 문고와 지역공동체를 이뤄가는
이승로 문고 대구광역시지부회장님을 칭찬합니다.

이승로 회장님은 광주광역시 문고와 한마음 콘서트를 개최해 동서 간에 함께 소통하며 책 읽는 즐거움을 깨닫게 했습니다. 지난 3년간 문고중앙회 발전에도 다방면으로 기여하고, 지역 문고 발전을 위한 도서 나눔과 독후감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등 누구나 닮고 싶어 하는 품격을 지녔습니다. 대한민국 새마을문고의 발전의 단초이자 새마을운동의 역군으로서 칭찬합니다.

From_ **김찬윤** 문고 강원특별자치도지부회장

문고 대구광역시지부의 성과는 저 혼자서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함께한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문고를 아끼고 응원해 주신 지역 주민들 덕분입니다. '책 읽는 도시 대구,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라는 지향점을 향해, 아이들과 함께하는 문화공동체로서 새마을문고의 가치를 넓혀가겠습니다.

_**이승로** 문고 대구광역시지부회장



청년새마을

말보다는 실천으로 보여 주는
우경호 충청북도 청년새마을연합회장님을 칭찬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고,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는 우경호 회장님은 많은 이에게 귀감이 됩니다. 항상 진심 어린 태도로 봉사하는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보여주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먼저 손을 내밀어 자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나누는 회장님의 봉사정신은 우리에게 희망과 감동을 줍니다. 우경호 회장님 덕분에 주변은 늘 따뜻함으로 가득합니다.

From_**김종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연합회장

김종현 회장님의 따뜻한 칭찬이 초심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청년새마을에서 활동하며 스스로 부족함을 채우고, 바쁘게 달렸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그런 저에게 따뜻한 응원의 말씀은 앞으로도 멈추지 말고 더 열심히 뛰어보라는 격려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함께 힘내서 더 멋진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_**우경호** 충청북도 청년새마을연합회장

대학새마을

헌신과 열정으로 빛나는 리더십
신유빈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 연합회장님을 칭찬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대학새마을동아리 연합회장으로서 누구보다 몸과 마음을 다해 새마을운동에 임하는 신유빈 회장님을 칭찬합니다. 전국새마을동아리연합회장이라는 어려운 자리를 맡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남을 돕는 일이면 언제나 열정을 다하는 모습에 많은 학생이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리라 기대됩니다.

From_**곽해주** 부산가톨릭대학교 회장

칭찬릴레이의 첫 시작을 제가 열었는데, 저 역시 칭찬의 주인공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새마을동아리를 위해 더 열심히 뛰고, 전국 대학새마을동아리 연합회장으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새마을 해외봉사단에서 동고동락했던 곽해주 회장님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_**신유빈**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장

새마을가족의 칭찬 릴레이는
다음호 〈새벽종〉으로 이어집니다.

비밀의 정원,
모두의 길이 되다

청남대에서 만나는 여름

푸른 기와의 청와대가 대한민국 권력의 상징이었다면,
'청와대의 남쪽에 있는 터'라는 뜻을 지닌 청남대(靑南臺)는
대통령의 공식 별장이자, 사적인 시간과 쉼의 공간이었다.
그랬던 청남대가 이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쉼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자연과 역사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변화된 가치가 있는 청남대로 떠나보자.

글. 박선우

청남대
-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길 646
- **운영 :** 09:00~18:00(매표 16:30까지, 매주 월요일 휴무)

역사의 베일을 벗고 국민의 품으로

1983년, 대청호반의 수려한 풍경 속에 대통령의 휴식과 국정 구상을 위한 공간인 청남대가 탄생했다. '남쪽의 청와대'라 불리며 2003년까지 다섯 명의 대통령이 휴가 기간에 머무른 이곳은 과거 권위와 신비의 상징이었다. 철통같은 경계 속에서 이곳의 사계는 바깥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변화의 바람은 2003년 4월 18일,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진 곳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면서 청남대는 굳게 닫았던 문을 활짝 열었다. 이는 새로운 관광지가 하나 생긴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최고 권력의 공간이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열린 휴식처로 전환된, 소통과 개방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개방 초기 인근 문의면 주민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5,800여 개의 돌로 쌓아 올린 기념 돌탑은 청남대 개방의 의미를 묵직하게 전해준다. 이제 청남대는 역대 대통령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대한민국 현대사를 돌아보고, 잘 보존된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통령이 걷던 길, 국민의 길이 되다

청남대에 들어서면 잘 가꿔진 조경수와 형형색색의 야생화가 가장 먼저 방문객을 맞는다. 총 184만m^2에 이르는 넓은 부지에는 청남대를 찾는 이들이 꼭 둘러봐야 할 산책 코스가 마련돼 있다. 본관에서부터 시작하는 '오각정길'은 청남대의 대표 정자인 오각정을 거쳐 대청호 수변을 따라 이어진다. 평탄하고 잘 정비돼 있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걷기 좋다.

길을 따라 펼쳐지는 호수 전망과 숲의 조화는 자연 속에서 힐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장소다. '민주화의 길'은 본관 뒤편 숲길에서 시작된다. 숲이 우거지고 사람의 발길이 비교적 덜한 이 길은 실제 대통령들이 자주 걸었던 코스다. 고요한 분위기와 함께 묵직한 사색이 어울리는 이 길에서는 청남대의 원래 성격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솔바람길'이라는 이름처럼 소나무 숲이 주인공이다. 굵직한 소나무들이 양옆에 빼곡히 늘어서 있어,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과 함께 걷는 기분이 좋다.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향이 진하게 퍼지며 자연치유의 느낌을 더한다.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화합의 길'은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나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추천할 만하다. 길 자체가 짧고 평탄하며,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는 벤치와 쉼터가 잘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통일의 길'은 전망대와 출렁다리로 이어지는 등산코스다. 다소 경사가 있지만, 탑 위에서 바라보는 전경이 탁 트여 있어 보람이 있다. 통일의 염원과 함께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 길의 이름에 담겨 있다.

비교적 최근 조성된 '호반길'은 청남대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호수와 숲이 어우러진 풍경은 그 자체로 한 폭의 수채화 같고, 무엇보다 복잡한 생각 없이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는 길이다. 이처럼 청남대의 길들은 단순히 풍경을 즐기는 산책로를 넘어, 대한민국 현대사의 무게와 방향성을 상징하는 의미 깊은 길이다. 대통령이 걸었던 길 위를 국민이 걷는다는 것, 그것은 곧 과거의 권위가 오늘의 공공성과 만나는 순간이기도 하다.

권력의 공간에서 기억의 공간으로

청남대는 본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건축물과 상징적 구조물이 조성돼 있어, 방문자들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역사적 의미와 마주한다. 그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은 본관이다. 대통령이 실제로 머물며 집무를 보던 공간으로 내부는 당시의 구조와 인테리어를 그대로 재현해 한 시대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오각정은 가장 상징적인 장소다. 오각형 기와지붕의 정자 안에 앉으면 대청호와 청남대 본관이 한눈에 들어오며, 이곳에서 대통령들이 혼자 사색하거나 차를 마시던 풍경을 상상할 수 있다. 중앙에 자리한 봉황탑은 대통령의 기상과 국가의 번영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다. 봉황은 전통적으로 '이상적인 군주'를 뜻하는 상징으로, 탑 주변은 인증샷 명소이기도 하다.

역동적인 풍경을 만나고 싶다면, 음악분수 광장으로 향해 보자. 일정 시간마다 클래식 음악이나 대중가요에 맞춰 물줄기가 리듬감 있게 뿜어져 나온다. 숲길로 조금 더 걸음을 옮기면, 곧게 뻗은 메타세쿼이아길이 펼쳐진다. 수십 그루의 키 큰 나무들이 한 줄로 늘어선 이 길은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여유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또 하나 눈여겨볼 곳은 양어장이다. 대통령들이 낚시를 즐기던 공간으로, 지금은 맑은 연못에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외에도 관람형 전시공간이 풍성하게 마련돼 있다. 대통령기념관은 역대 대통령들의 사진, 어록, 집무 기록 등을 전시해 시대별 정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새기는 공간이다. 또한 청남대 기념관은 이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을 거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청남대 너머, 여행의 여운을 이어주는 풍경들

청남대를 둘러봤다면 그 여운을 조금 더 이어가고 싶어지는 것이 여행자의 마음이다. 다행히 청남대 인근에는 그 마음을 충족시켜 줄 아름다운 자연과 여유로운 명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은 단연 대청호다. 청남대를 품은 대청호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인공호수로 여름에는 울창한 숲과 푸른 호수가 어우러져 마치 동화 속 배경처럼 느껴진다. 대청호를 따라 조성된 드라이브 코스는 '한국의 숨겨진 절경'으로 손꼽힐 만큼 빼어난 풍광을 자랑해 사진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호수 주변에는 간단한 산책이 가능한 둘레길과 자전거 도로도 마련되어 있어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며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자연과 함께 문화의 향기도 더하고 싶다면 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을 추천한다. 대청호 인근 언덕에 자리한 이 작은 미술관은 호수를 내려다보는 전망이 일품이며, 현대미술 전시와 함께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꾸준히 소개한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잠시 숨을 돌린 후 바로 옆에 자리한 문의문화재단지까지 보는 것을 추천한다. 조선시대 충청북도 지역의 고건축과 민속문화를 재현한 이곳은 한적한 마을 풍경 속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옛 선비들의 정취가 깃든 고택을 걸으며 청남대와는 또 다른 정적인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다.

청남대와 그 주변은 자연, 역사, 예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다. 당일치기 여행으로는 다 담기 아쉬울 만큼 여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장소들이다. 쉼표가 필요한 여름날, 잠시 속도를 늦추고 청남대 일대를 천천히 걸어보는 건 어떨까. 어쩌면 그 속에서 당신만의 '비밀의 정원'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오각정길
- **경로 :** 본관 → 오각정 → 봉황탑 → 데크길 → 음악분수
- **특징 :** 평탄 코스, 오각정·봉황탑 포함, 호수 전망
- **거리(km) :** 1.5km / **소요 시간 :** 약 30분

민주화의 길
- **경로 :** 어울림마당 → 그늘집 → 만남의 광장 → 초가집(물멍쉼터)
- **특징 :** 대통령 사색길, 메타세쿼이아 숲
- **거리(km) :** 1km / **소요 시간 :** 약 20분

솔바람길
- **경로 :** 본관 좌측 → 소나무 숲길 → 쉼터 → 음악분수
- **특징 :** 소나무 피톤치드, 여름철 힐링 숲길
- **거리(km) :** 2km / **소요 시간 :** 약 50분

화합의 길
- **경로 :** 수목원 둘레길 → 돌계단 → 음악분수
- **특징 :** 짧고 평탄, 가족 및 어르신에게 적합
- **거리(km) :** 1.2km / **소요 시간 :** 약 25분

통일의 길
- **경로 :** 초가정 → 출렁다리 → 제1전망대 → 행복의 계단
- **특징 :** 가장 긴 트레킹 코스, 풍경 좋고 운동 효과도 큼
- **거리(km) :** 2.5km / **소요 시간 :** 약 60분

호반길
- **경로 :** 산림욕장 → 쉼터 → 피크닉장
- **특징 :** 대청호 조망, 무장애 데크, 경관 위주 산책로
- **거리(km) :** 3.1km / **소요 시간 :** 약 90분

실손보험 제대로 알고 쓰자!
병원비를 덜어주는 '제2의 건강보험'

흔히 '실손보험' 또는 '실비보험'이라 알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병원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이 가입했을 만큼 관심과 인기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보장 범위와 청구 조건을 몰라 낭패를 보기도 한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실손보험을 차근차근 알아보자.

글. 편집실

+ 병원 진료비 걱정 덜어주는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병원 진료나 치료 후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 부담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입원비, 통원비, 약제비 등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일정 비율로 보장해 주며, 국민 대부분이 가입할 정도로 대표적인 건강보험 상품으로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린다.

+ 급여 vs 비급여, 알면 쉬운 진료비 구조

실손보험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내는 진료비의 구조와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우선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대다수 사람에게 필요한 의료 항목을 선별해 이를 '급여 항목'으로 정하고 진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감기 진료는 '급여 항목'으로서 건강보험이 진료비 중 일부를 보장하고,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본인부담금)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외에 예방이나 재활, 미용 등이 목적인 의료 항목은 '비급여 항목'으로서 진료 및 치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때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의 비용을 일부 보완해 준다.

비급여 항목 중 실손보험 일부 보장 항목

구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비고
MRI, CT, 초음파 검사	○	○	○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	○	제한적 ○	제한적 ○	보장 횟수 제한 가능
백내장 수술 (단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	○	○	○	
일부 치과 치료 (임플란트 등)	○	○	○	○	가입 상품에 따라 다름
한방 치료 중 일부 (약침 치료 등)	○	○	○	○	

- **급여 항목**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으로, 진료비를 건강보험과 본인이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
- **비급여 항목**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항목(일부 항목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기도 함)

+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실손보험의 변천사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별로 1~4세대로 구분된다. 세대별로 자기부담율도 다르다. 특히 최근에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에는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되는 할인/할증제가 적용됐다.

이처럼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 오남용에 따른 보험료 인상, 가입자 부담 증가 등으로 수차례 바뀌어 왔고, 2024년부터 금융당국이 또 한 번의 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하면서 올해 말에도 새로운 5세대 실손보험 출시가 예정돼 있다. 기존 대비 보장 범위, 본인부담금, 보험료 등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보장 대상을 중증 질환과 비중증 질환으로 나뉘는 게 큰 특징이다.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은 유지하면서 경증 질환 보장은 축소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또 도수 치료, 체외충격파 등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대신 기본 보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임신·출산 관련 급여 항목 보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료는 4세대 실손보험보다 30~50% 정도 저렴해질 가능성이 크다.

세대	판매시기	자기부담률	주요특징
1세대	~ 2009. 9.	없음(100% 보장)	보장 범위 넓고 보험료 비쌈
2세대	2009. 10. ~ 2017. 3.	10%	표준화, 갱신주기 단축
3세대	2017. 4. ~ 2021. 6.	**급여 :** 10%~20% / **비급여 :** 기본 20%, 특약 30%	비급여 특약 분리, 무사고 할인 도입
4세대	2021. 7. ~ 현재	**급여 :** 20% / **비급여 :** 30%	비급여 청구량 따라 보험료 할증/할인
5세대	2025년 말 출시 예정	**급여 :** 입원 20%, 통원 :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연동 **비급여 :** 중증 20~30%, 비중증 50%	보험료 인하, 보장 한도 축소

개인의 의료비 지출액, 건강 상태, 임신·출산 계획 등을 고려해 지금의 실손보험을 유지할지, 아니면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좋을지를 잘 판단해 보자.

+ '가입했는데 못 받는다?'… 보험금 미지급 사례 늘어

최근 백내장 수술, 도수 치료 등 특정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 보험금 지급 심사가 강화되고 있고,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1]를 임의로 적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약관에 없는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접수된 실손보험 관련 민원 중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적용 등 '약관 적용 다툼'이 34.4%(7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치료를 과잉진료로 판단해 보험금을 미지급한 경우 30.6%(63건),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을 보험금에서 공제한 경우 20.9%(43건),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한 경우 14.1%(29건) 등이 있었다.

1)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인 소득 분위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하는 제도(「국민건강보험법」)

✓ 청구 전 꼭 확인하세요! 실손보험 사용 팁

❶ 가입 시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

실손보험으로 모든 진료비를 보장받을 수는 없다. 예상하지 못한 보험사와의 분쟁 예방을 위해서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❷ 보험금 청구 시 비급여 치료에 대한 객관적 검사 결과 확보

고액·비급여 치료 시 보험사가 과잉진료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의학적으로 검증된 객관적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❸ 실손보험 관련 피해 발생 시 기관에 도움 요청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등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유료) www.ccn.go.kr

한국소비자포털 소비자24 Consumer Information & Counseling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❹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확인하기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는 제출 생략 가능
보험금 청구서	보험사마다 양식이 다르므로 보험사에서 발급 후 작성
진료비 영수증	검사·치료 항목이 적힌 진료비 영수증. 카드 결제 영수증 불가
진료비 세부내역서	비급여 항목 포함시 필수
약제비 영수증	-
처방전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돼야 함
추가 증빙서류 별도 확인	진료비가 10만 원 이상일 때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등

❺ 주의 사항

- 보험사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청구 전 가입 보험사에 확인
- 진료일(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비급여 항목 보장 여부는 보험사 기준마다 다름

www.saemaul.or.kr

SAEMAUL NEWS

새마을운동중앙회의 활동과 반가운 소식,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Vol.21

중앙회

레바논 방한연수단 1일 새마을교육

중앙회는 지난 5월 8일 새마을역사관을 찾은 레바논 방한연수단 15명을 대상으로 1일 새마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새마을운동 역사와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소개하고, 새마을운동을 통한 한국의 성공 사례와 경제발전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레바논 방한연수단은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배경과 추진 과정에 관한 소개 영상을 시청한 후 역사관을 관람하며 새마을운동 성공 요인과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새마을운동 기록물 자료관을 찾아 1970년대 생산된 사업일지와 마을회의록 등을 직접 살피며 새마을운동 성공 사례를 엿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도미니카공화국·온두라스 초청 새마을교육

중앙회는 지난 5월 14일부터 27일까지 지속 가능한 지구촌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해 도미니카공화국·온두라스 초청 새마을교육을 실시했다. 도미니카공화국과 온두라스는 각각 4개의 시범마을에서 새마을운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범사업 모범사례를 공유해 새마을운동의 현지화를 돕고자 마련됐다. 교육기간 동안 연수생들은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과 추진 전략 강의, 성공사례 공유, 액션플랜 수립, 현장 견학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및 현지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동티모르 초청 새마을교육

중앙회는 지난 7월 8일 동티모르 초청 새마을교육 입교식을 개최했다. 동티모르 공무원과 4개 시범마을 지도자들 21명은 17일까지 지속 가능한 지구촌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국가별 맞춤형 새마을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새마을운동 이론교육과 현장학습을 통해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범마을 사업 모범 사례를 공유해 동티모르 새마을운동의 현지화를 돕고자 마련됐다. 교육 기간 동안 연수생들은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과 추진 전략 강의, 성공사례 공유, 액션플랜 수립, 현장 견학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및 현지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캄보디아 새마을해외봉사단 발대식

중앙회는 지난 7월 15일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제4강의실에서 대학생 새마을 해외봉사단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캄보디아 새마을해외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선발된 대학생 봉사단은 7월 10일부터 5박 6일 동안 새마을운동 추진 현황, 캄보디아 현지 문화와 역사, 자원봉사자 윤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했다. 봉사단은 발대식 이후 캄보디아 현지로 출국해 14박 15일 동안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 교육 환경이 열악한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지도, 보건교육, 한국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문화교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친다.

시·도 소식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서울 농촌일손 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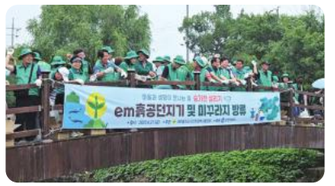
서울시부녀회(회장 조동희)는 지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충청북도 단양군 일대 마늘 재배 농가에서 '2025년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일손 돕기는 서울시 25개구 부녀회가 주관하고, 서울시부녀회가 주최한 행사로, 고령화와 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조동희 회장은 "제철 농산물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서울시 각 구 부녀회장님과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부산 새마을의 날 기념식·어울림 한마당

부산시새마을회(회장 백옥자)는 지난 6월 7일 북항 친수공원에서 새마을운동 55주년 · 제15회 새마을의 날을 기념해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한편, 시민 간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총 3부로 구성돼 진행됐다. 1부는 새마을의 날 기념식으로 시작됐으며, 2부에서는 걷기대회 및 EM 흙공 던지기 행사가 이어졌다. 3부에는 다문화가족 힐링 콘서트가 열렸다.

대구 새마을운동 55주년 새마을의 날 기념식

대구시새마을회(회장 최영수)는 지난 6월 11일 iM뱅크 2본점 대강당에서 '새마을운동 55주년·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과 새마을지도자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며, 새마을운동에 30년간 헌신한 지도자에게는 새마을기념장이 수여됐다. 최영수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인천 하천 정화활동·자유민주주의 현장체험 추진 회의

인천시협의회(회장 윤영학)는 지난 6월 27일, 인천 연수구 승기천 일원에서 '승기천 살리기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인천광역시의 지원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인천 내 새마을지도자 100여 명이 참여해 하천에서 EM 흙공 던지기, 미꾸라지 방류, 쓰레기 수거 등 수질 개선과 생태환경 복원에 나섰다. 인천청년새마을연합회(회장 김학만)는 지난 6월 24일, 시새마을회 회의실에서 '자유민주주의 현장체험' 추진을 위한 핵심 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체험활동 장소로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 선정됐다.

광주 새마을의 날 기념식

광주시새마을회(회장 류재선)는 지난 6월 12일 남구 효천물빛노닐터 축구장에서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새마을의 날'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참여 확대를 위해 2011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으며, 올해 15회를 맞이했다. 기념식에서 류재선 회장은 "광주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국가 시범도시 조성,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건설, 금호타이어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 우리동네 안전·환경 지킴이 발대식

대전시협의회(회장 이경원)는 지난 6월 5일 대전 효문화마을 대강당에서 '2025년 우리 동네 안전·환경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택구 대전광역시 정무경제과학 부시장, 양윤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장, 박찬보 시협의회 명예회장을 비롯해 시 단체장과 5개 구 회장, 협의회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경원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함께 사는 동네, 함께 지키는 안전이라는 가치를 적극 실천해 대전을 더없이 따뜻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가겠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울산 **'그래! 역시! 깨끗데이' 환경정비 활동**

울산시새마을회(회장 정대식)는 지난 6월 24일, 울산 문수로 일대 5km 구간에서 거리 환경정비 활동인 '그래! 역시! 깨끗데이'를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시민참여 캠페인의 일환으로, 새마을회를 비롯한 8개 단체는 매월 넷째 주에 시내 주요 도로변 40km의 환경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올해를 시작으로 박람회가 열리는 2028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궂은 날씨에도 새마을지도자들이 깨끗한 울산 만들기에 앞장섰고, 시민들의 응원도 이어졌다.

세종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연찬회**

세종시새마을회(회장 김영제)는 지난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충남 보령에서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과 '2025년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비롯해 새마을지도자 220여 명이 함께하며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실천 목표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다. 또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6명이 최민호 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으며, 참석자들은 축하와 격려를 나누며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

경기 **단체별 워크숍 통해 소통과 발전 방안 모색**

경기도새마을회(회장 이호경)는 지난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강원도에서 '2025년 경기도새마을회 시·군지회장 워크숍'을 열었다. 경기도 내 28개 시·군지회장이 참석해 새마을운동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같은 날, 문고 경기도지부(회장 이현호)도 남양주 정약용 생가에서 총 63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5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어 6월 19일부터 20일까지는 부녀회(회장 서영숙)가 '멋진 언니들의 흥미진진한 1박 2일'이라는 주제로 경남 거제와 부산 일대에서 시군 부녀회장 워크숍을 진행했다.

강원 **'이재민 성금 전달·상지대와 강원대 새마을동아리 농촌봉사**

강원도새마을회(회장 홍순선)는 지난 5월 15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2025년 3월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새마을가족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성금 2,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강원도 내 새마을가족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2,000만 원과 정선군에서 별도로 모금한 300만 원을 합한 것으로,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응원하는 뜻을 담았다. 한편, 상지대·강원대 새마을동아리는 지난 6월 26일 강원도 화천군 농가 6곳을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 봉사와 함께 동아리 간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충북 **탄소중립 실천 '새마을가족 농다리 줍깅'**

충청북도새마을회(회장 남재호)가 지난 6월 13일, 진천 농다리 일원에서 '새마을가족 농다리 줍깅' 행사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실천운동에 앞장섰다. 행사에는 내빈을 비롯한 새마을가족 650여 명이 참여해 환경보호와 공동체 실천의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서는 하천과 주변 자연환경을 정화하는 줍깅 활동을 중심으로 EM흙공 던지기, 공연과 체험부스,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남재호 회장은 "새마을운동은 녹색 전환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실천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 **'농촌폐기물 포럼' 및 '새마을 뚜벅이 봉사단' 발대식**

충청남도협의회(회장 이갑복)는 지난 6월 26일 홍성문화원에서 도내 새마을지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새마을의 실천을 위한 포럼'과 '새마을 뚜벅이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농촌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새마을의 실천'을 주제로 열렸으며, 농촌 지역의 쓰레기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갑복 회장은 "농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새마을가족이 앞장설 것"이라며 실천 의지를 밝혔다.

전북 **해외협력봉사단·백일홍회 초청 간담회**

전북도새마을회(회장 이상수)는 지난 6월 30일 '제4회 전북형 새마을 해외협력사업 봉사단' 발대식을 열고, 해외 봉사활동에 나섰다. 해외협력사업은 지난 7월 18일부터 27일까지 전북과 우호 협력을 맺은 베트남 닥락성 시범마을에서 30여 명의 봉사단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부녀회(회장 강귀자)는 지난 6월 12일 부녀회 후원회인 백일홍회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귀자 회장은 "든든한 후원자인 백일홍회에 감사드리며, 따뜻한 세상 만들기에 부녀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남 **우수농산물 팸투어·헌혈 릴레이**

전라남도새마을회(회장 양재원)는 전남의 청정 농산물과 지역 관광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팸투어를 추진 중이다. 전남 농산물의 브랜드화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팸투어에는 지난 6월 11~12일에는 충청남도새마을회가, 24~25일에는 대구광역시새마을회가 참가해 전남의 자연과 농산물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전라남도 청년새마을연합회(회장 김영명)는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해 6월 4일부터 14일까지 전남 헌혈의 집 일원에서 헌혈 캠페인을 전개했다.

경북 **행복경북마을공동체 발대식·경북 산불 피해 지역 성금 전달**

경상북도협의회(회장 조성현)는 지난 6월 9일 성주군 선남파크골프장 주차장에서 '2025년 행복경북마을공동체 발대식 및 3R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또 각 시군에 재활용품 수거용 그물망 1만 5,000여 장을 배부해 자원순환 실천 확산에 나섰다. 부녀회(회장 도영순)는 산불 피해를 입은 도내 새마을 가족과 주민들을 위해 총 2,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지난 5월 20일 의성군새마을회관에서 산불 피해 5개 지역 부녀회장에게 1천만 원을, 6월 3일 경북도청에서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에게 1천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

경남 **경남청년새마을연합회 워크숍**

경상남도새마을회(회장 윤원섭)는 지난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간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에서 '2025 경남청년새마을연합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도새마을회 임원과 경남청년새마을연합회(회장 남동현), 대학 새마을동아리 회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청년 중심의 새마을운동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2023년 출범한 경남청년새마을연합회에서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새마을운동과 시너지를 이어가고 있다.

제주 **캄보디아 국제협력사업**

제주도새마을회(회장 김창기)는 지난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캄보디아 캄퐁 크라베이 마을을 방문해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을 펼쳤다. 이번 사업에는 시새마을회 회장단과 이사, 도청 관계자 등 20명이 참여했으며, 크라베이 마을회관 울타리 설치와 식수탑 건설을 지원했다. 또한 현지 어린이를 위한 책가방 50여 개를 전달했다. 12일 열린 현판식과 기증식에는 림 스레이니트(Lim Sreynith) 여사와 혹 팔리(Hok Phally) 국회의원, 쯔언 쏘콘 면장, 찐 보땀 협력관과 주민 및 어린이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북5 **현충원 참배 및 봉사활동**

이북5도새마을회(회장 조성원)는 지난 5월 19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는 참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의회(회장 마영휘)와 부녀회(회장 서영미) 지도자 70여 명이 함께 참석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추모하고, 통일새마을운동 실천을 다짐했다. 이후 제11묘역 일대에서 묘비 닦기 및 환경 정화 활동도 전개하며 순국선열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했다. 이북5도새마을회는 매년 호국보훈의 달마다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 및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시군구 새마을(지)회 우수사업사례집 활동내용을 토대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서울 종로구새마을회

새마을군집기 게양식

무엇을?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 및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공동체 의식 고취 및 지역 참여 확대

어떻게?
- 새마을 군집기 게양을 통해 새마을정신의 현대적 계승 및 실천 의지 다짐
- 회원 단체 간 융화를 통한 새마을 가족의 자긍심 고취 및 일체감 조성

Point!
- 군집기 게양을 통한 단결력·참여의식 증진
-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행사로 발전 방향 제시
- 새마을기 보급 및 회원배가운동 분위기 조성

#공동체의식 고취 #새마을정신 계승 #회원배가운동 분위기 조성

서울 마포구새마을회

지혜의 나눔 Book Change

무엇을?
하나, 책을 주고받는 경험으로 독서에 대한 흥미 유도
둘, 책을 버리지 않고 순환시켜 환경보호와 친환경적 독서문화 조성

어떻게?
- 2015년 이후 발행 도서 2권과 신간도서 1권을 무료로 교환

Point!
- 신간 도서로의 교환은 단순한 소유의 교체가 아니라 지식과 감동의 순환으로 독서 습관 유지

#도서 교환 #지식의 재활용 #선택의 즐거움

부산 북구새마을회

어린이 새마을 문화·역사 탐방

무엇을?
하나, 새마을운동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 증대
둘, 세대 간의 소통과 공감을 도모

어떻게?
- 청도 새마을운동 발상지기념관 및 청도읍성 방문
- 새마을운동의 시작과 역사적 배경을 직접 체험

Point!
- 유치원생들과 청년세대가 함께, 세대가 어우러지는 새마을 문화·역사 탐방

#새마을운동 바로 알기 #세대 간 화합 #소통과 공감

부산 사상구새마을회

EM 흙공 던지기

무엇을?
하나, 지역 하천인 주감천에 EM 흙공을 던져 환경 정화
둘, 기후위기 극복을 통한 맑은 하천 만들기

어떻게?
- 5주간 정성껏 발효한 EM 흙공을 주감천에 던짐

Point!
- 주감천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 힘껏 던지는 흙공

#맑은 하천 만들기 #기후위기 극복 #하천 수질 개선

대구 달성군새마을회

지역사랑 농촌일손돕기

무엇을?
하나, 고령화된 농촌사회에서 부족한 일손나눔으로 지역사랑 실천
둘, 농산물 가격 저하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고통 분담

어떻게?
- 9개 읍면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이른 새벽부터 수확참여
- 1,200평 양파밭에서 비닐 제거 및 양파 수확

Point!
- 무더운 날씨임에도 새마을지도자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고통을 함께 분담
- 군청 및 읍사무소, 관내 파출소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응원 방문

#새마을공동체 #온기 나눔 #좋은이웃 만들기

인천 남동구새마을회

직장·공장새마을 회원 배가 운동

무엇을?
하나, 직장·공장 인천 남동구협의회 회원 배가 및 신규 회원과의 유대감 증진
둘, 회원 간 친목 도모 및 단결력 강화
셋, 직장·공장 인천 남동구협의회의 사업 방향 및 조직 활성화 도모

어떻게?
- 표창장 수여, 신규 회원 위촉식, 만찬 나누기
- 미니운동회 개최

Point!
- 직장·공장 남동구협의회 단체 내 조직력 강화 도모
- 신규 회원의 소속감 부여 및 직장·공장 남동구협의회 홍보

#공동체문화 조성 #다문화가족 #좋은이웃 만들기

광주 북구새마을회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배객 급수 봉사

무엇을?
하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들을 애도
둘,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 가치 공유

어떻게?
• 민주 유공자들을 기억하고 한마음으로 추모
•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배객을 위해 물과 커피 제공

Point!
• 5·18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에게 음료를 제공
• 광주시민의 고귀한 희생정신 애도

#민주주의 #물 한잔 나누는 정 #갈등을 해소

대전 대덕구새마을회

탄소중립실천 나무심기

무엇을?
하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나무심기 활동
둘, MZ(청년연대, 동아리)조직 봉사활동 기회 제공

어떻게?
• 농업휴양마을에 지역화합과 탄소중립실천 활동으로 나무심기 추진
• 장동 계족산에 연산홍 900그루 심기

Point!
• 거리와 공간을 아름다운 시각적 안정감 및 정신적 안정감 제공
• 나무심기 활동을 통해 세대·계층 간 소통 기회 제공

#나무식재 #환경보호 #자원봉사

울산 울주군새마을회

이웃사랑 열무김치 나눔

무엇을?
하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작은 발걸음
둘, 다함께 잘 사는 우리사회 만들기

어떻게?
• 새마을지도자 70여 명이 담근 열무김치를 관내 250가구에 전달
•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에 일조

Point!
• 직접 담근 열무김치를 취약계층에 전달해 함께 나누는 문화 확산
• 사회의 다양한 위치에 있는 많은 이들이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눔

#건강새마을운동 #복지사각지대해소 #좋은이웃만들기

경기 수원시새마을회

새마을 러브하우스

무엇을?
취약계층 집 수리 봉사활동

어떻게?
• 관내 취약계층 및 소외가정대상으로 도배 및 장판교체, 집 안팎 청소 등
• 생활밀착형 봉사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 실천

Point!
•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동체문화 조성 #집 수리 봉사 #좋은이웃 만들기

경기 남양주시새마을회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된장 뜨기-

무엇을?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된장 뜨기 활동

어떻게?
•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밑반찬 나눔을 위한 재료 준비
• 전통 방식으로 된장 담그기 사업, 추후 사랑의 밑반찬 전달 활동과 연계

Point!
•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 조성
•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된장 나눔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음

#공동체문화 조성 #어려운 이웃 돕기 #된장 담그기

경기 안성시새마을회

사랑가득 우리동네 생신 밥상

무엇을?
지역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어떻게?
• 지역 내 홀몸 어르신, 복지 사각지대 게신분들을 대상으로 생신상 나눔
• 대덕면협의회와 부녀회가 함께 고기와 떡,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

Point!
• 사랑의 밑반찬과 떡과 고기를 준비해 어르신들의 생신을 축하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듦

#함께 새마을 #어르신 생신 축하 #사랑의 반찬 나누기

강원 속초시새마을회

있잖니? 병뚜껑 놀이하자

무엇을?
하나, 속초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환경운동
둘, 병뚜껑을 활용한 아트 놀이

어떻게?
• 병뚜껑을 활용한 놀이를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 유도

Point!
• 시민과 함께 환경을 생각하는 문화 예술 나눔 확산
• 병뚜껑 아트를 통해 하나되는 공동체 활동

#탄소 중립 #병뚜껑 아트 #하나 된 속초시새마을

강원 철원군새마을회

찾아가는 길 위의 인문학
'서울국제도서전 전시회 방문'

무엇을?
하나, 국제적 독서 흐름 체크, 의식 함양
둘, 문화 혜택 수혜 적은 지역사회 주민 문화 의식 고무

어떻게?
• 국내 최신 유행 도서, 독서문화 흐름을 전시로 확인
• 도서 디자인 등 부가 창출 사업 관람

Point!
• 문화 혜택 수혜 미비 지역에 혜택 제공

#국제도서전 #독서 의식 함양 #독서문화 증진

충북 영동군새마을회

대학새마을동아리 오지마을 농촌봉사활동

무엇을?
하나, 대학새마을동아리와 직장·공장 충북 영동군협의회의 찾아가는 농촌봉사활동
둘, 젊은 대학생들의 지역 농촌 생활 체험

어떻게?
• 직장·공장 충북 영동군협의회와 유원대학교 새마을동아리가 함께
•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오지마을 농가를 찾아 1박 2일 농촌봉사활동을 펼침

Point!
•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포도 순 따기, 블루베리 수확, 들깨 순 심기 등 활동
• 마을 어르신 염색해 주기와 취약지역 도색까지 진행

#충북 영동군 직장·공장협의회 #유원대학교 새마을동아리 #농촌봉사활동

충북 단양군새마을회

독서골든벨 퀴즈 대회

무엇을?
하나, 책에 대한 흥미 유발과 즐거운 독서 경험 제공
둘, 또래와 함께 즐기는 책 중심의 소통 문화 조성

어떻게?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독서골든벨 퀴즈대회 개최
• 사전에 선정된 도서를 읽고 OX 퀴즈와 객관식 문제를 통해 이해도 점검

Point!
• 퀴즈를 통해 책의 내용을 재미있게 복습
• 친구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책 읽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

#청소년 독서문화 #퀴즈대회 #독서활동 확산

충남 홍성군새마을회

어르신 경로 효 잔치

무엇을?
하나,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 실천
둘, 지역공동체의 온정과 연대강화

어떻게?
• 지역 어르신 700명을 모시고 음식 대접

Point!
• 효 문화의 전승 및 확산과 고령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어르신들이 느끼는 고립감 해소

#효문화 전승 #문화새마을 #상생문화 조성

충남 부여군새마을회

농촌 왕진버스 의료봉사

무엇을?
하나,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농촌공동체의 복지 증진
둘, 공공의료의 역할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

어떻게?
• 농촌 지역 왕진 버스 의료봉사 도움

Point!
• 주민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
•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지역연대 건강증진 #건강새마을 #의료사각지대 해소

전북 완주군새마을회

가온새마을작은도서관 개관식

무엇을?
하나,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운동 확산에 기여
둘,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공동체문화 정착 및 나눔 문화 확산

어떻게?
• 가온새마을작은도서관 개관
• 독서문화모임, 육아돌봄 프로그램, 결혼이주여성 대상 한국어 교실 진행

Point!
• 도시문화지원센터 '시민마을학교' 선정
• 지역 청년과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문화 수업(가죽공예, 캘리그리피 등) 운영
•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한국어 교실 진행
• '우리 함께' 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공동체 정신 실천

#문화새마을운동 #공동체문화 조성 #다문화가족

전북 진안군새마을회

행복한 문화공동체 – 따뜻한 이웃

무엇을?
하나, 다문화가족, 홀몸 어르신에게 마음의 안정과 휴식 제공
둘, 건강하고 행복한 문화새마을운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어떻게?
• 나를 소개하고 나만의 화분 꾸며보기
• 다양한 식물을 심으며 내 안의 소중함을 발견

Point!
•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이웃에게 관심을 두는 마음을 키움
• 공동체문화 조성으로 문화의식 수준 향상

#문화새마을 #따뜻한 이웃 #행복한 공동체

전남 강진군새마을회

효심이 빨래방 운영

무엇을?
하나, 노인정과 마을회관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이불 세탁
둘, 복지사각지대 등 취약 계층의 이불 세탁

어떻게?
• 부녀회장이 이불 세탁이 어려운 가정 여부 파악
• 45일에 한 번씩 순차적으로 각 마을의 이불을 관리함.

Point!
• 효심이 프로젝트로 마을경로당 청소와 이불 빨래, 어르신 목욕시켜 드리기
• 무거운 이불 빨래 직접 수거, 세탁, 건조, 배달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공동체문화 조성 #어른 공경하기 #좋은 이웃 만들기

전남 무안군새마을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무엇을?
하나,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
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한 거리 만들기

어떻게?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유해환경 밀집지역(편의점, 유흥점 등) 순찰
• 청소년 보호 문구가 담긴 피켓 및 청소년 출입 제한 스티커 부착 계도

Point!
• 유해환경 감시를 통해 청소년 보호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 관공서와 협력해 합동 점검 및 캠페인 진행

#건강새마을 가꾸기 #청소년 유해환경 OUT #건강한 지역사회

전남 영광군새마을회

가족사랑 나눔장터

무엇을?
하나, 자원 재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둘, 지역의 대표적인 기관과 지역사회의 상생 모델

어떻게?
• 한빛원자력본부와 협력, 군민 재활용품을 지역 농산품으로 교환
• 재활용품에 새 가치를 부여해 축제 나눔장터에서 자원 선순환 실현

Point!
• 작은 나눔에서 시작되는 '탄소중립', 새마을정신의 현대적 계승
• 민·관·주민의 상생 협력, 지역 발전의 성공 모델
• 잘사는 것'을 넘어 '함께 사는 가치'로, 진화하는 새마을운동

#탄소중립 실현 #상생 협력 #나눔문화 조성

경북 안동시새마을회

관내 경로당 장수사진 촬영

무엇을?
하나,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재능기부
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일깨우는 이웃사랑 나눔

어떻게?
•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다과 및 음료를 함께 나누며 긴장을 풀고 소통하기
• 1:1 맞춤 메이크업 및 개별 촬영

Point!
• 현장에서 바로 간단한 사진 보정, 인화된 사진과 액자 전달
• 추억을 남기며 정신적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

#관내 경로당 방문 #장수 사진 촬영 #이웃사랑나눔

경북 예천군새마을회

아름다운 코스모스단지 조성

무엇을?

하나, 예천군 호명읍 월포리에 멋진 코스모스 단지 조성
둘, 예천군민과 예천을 찾는 모든 분에게 아름다움과 휴식 선사

어떻게?

- 예천군 호명읍새마을회 지도자들이 직접 나서서 단지 조성
- 바쁜 농번기와 더운 날씨임에도 코스모스 씨앗 파종

Point!

- 1만 2천 평 정도의 넓은 곳에 활짝 피어날 꽃을 상상하며
- 코스모스뿐만 아니라 해바라기도 함께 파종

#공동체문화 조성 #코스모스 경관 단지 #해바라기

경남 밀양시새마을회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

무엇을?

제70주년 현충일을 맞아 나라사랑 및 국기게양 의식 확산

어떻게?

-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 등 30여 명이 신촌오거리에서 캠페인 전개
- 태극기 게양 요령, 보관·폐기 방법 등 홍보
- 훼손된 국기꽃이 700여 개를 정비·교체하거나 신규 설치
- SNS 인증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국기 게양 실천 유도

Point!

- 시민들이 실제로 태극기를 달 수 있도록 실질적 환경 마련
- 온라인 참여 이벤트를 통해 전 세대가 함께하는 국기 사랑 문화 확산

#국기사랑 운동 #보훈의식 함양 #참여형 캠페인

제주 서귀포시부녀회

자원순환나눔 실천의 장

무엇을?

하나, 재활용, 재사용, 새활용하는 친환경적인 자원순환의 가치 홍보
둘, 자원순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

어떻게?

- 안 입는 옷, 폐건전지 교환 및 아나바다 장터 운영
- 손수건 염색, 개인 컵 만들기, 친환경 방향제 만들기, EM비누 만들기
- 컵 보증제 홍보 및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전개
- 매직버블쇼 및 다양한 이벤트 참여

Point!

- 지역 주민과 회원들이 참여하는 아나바다 장터 운영 및 체험의 장 마련
- No 플라스틱 & 제로웨스트를 실천하는 체험의 장
- 자원순환의 가치를 되새기고 지속 가능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

#녹색새마을 #자원순환 #탄소중립실천

새마을 라운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하게 소통합니다.

〈새벽종〉 05+06월호 독자 의견

강창규

새마을운동으로 농촌에 우마차 대신 경운기가, 초가지붕 대신 현대식 양옥이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의 현대화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 개발 협력 사업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지요. 밝은 미래 비전을 보여줄 새마을운동의 내일이 기대됩니다.

곽옥선

이 글을 읽으면서 지난봄 우리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피해 복구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급식 봉사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는 세상이지만, 항상 먼저 나서주는 새마을가족이 있기에 든든합니다.

임성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푸른 별 지구를 지키려는 노력과 그 마음을 잘 보았습니다. 또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을 위한 속초시 새마을회의 노력까지. 이런 새마을정신이 미래 세대에게도 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도영

청년들이 준비한 카네이션을 가슴에 단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새마을조끼를 입은 젊은이들이 어르신들과 생신상 앞에서 사진을 찍은 모습도 보기 좋고요. 마치 손자, 손녀와 할머니, 할아버지인 것처럼 친근해 보이네요.

QR코드 스캔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를 읽고 **좋았던 점이나 아쉬운 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소감은 다음 호에 소개되며, **선정되신 분께는 1만 원 상당의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빛나는제주

제주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1 혼자여도 OK!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❶ 대도시 팝업 이벤트 연계

탐나는전(1, 3, 5만원권) 추첨 지급

대도시 팝업 이벤트 연계 제주와의 약속 서약 후 디지털 관광증 사전 신청 접수한 사람 중 추첨 2025. 2. ~

❷ ESG 관광 참가

탐나는전(2만원권) 지급

전기차 렌트, 다자녀가구(그린키 인증 숙소 투숙) 등 ESG 관광 실천자

2025. 6. ~

❸ 여행주간 및 추석 장기 연휴 연계 이벤트

탐나는전(1, 3, 5만원권) 추첨 지급

3·6·9·11월 여행주간 내 방문자 및 10월 추석연휴 기간 내 방문자 대상

2025. 3. ~

2 함께일 때 더 큰 혜택!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공항도착 즉시 탐나는전 지급

❶ 동창·동문·동호회·스포츠 단체 등

15인 이상 탐나는전 지원

1인당 3만원, 단체당 최대 200만원 지급

※ 고유번호증 혹은 회칙·명단 보유 단체

※ 공항 도착시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 방문 후 항공권 제출, 대표자 신분 확인 필요

❷ 협약단체

20인 이상 탐나는전 지원

※ 도외에 위치한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약 기간에 있는 단체

※ 공항 도착시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 방문 후 항공권 제출, 대표자 신분 확인 필요

❸ 자매결연

20인 이상 탐나는전 지원

1인당 3만원, 단체당 최대 200만원 지급

※ 지원단체범위에 포함된 도내 단체와 자매결연 맺은 단체

※ 공항 도착시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 방문 후 항공권 제출, 대표자 신분 확인 필요

❹ 뱃길이용 일반단체, 동호회, 그 외 친목단체 등

10인 이상 탐나는전 지원

※ 항만 도착시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 방문 후 승선권 제출, 대표자 신분 확인 필요

※ 동호회, 그 외 친목단체: 고유번호증 혹은 온라인 등 운영실체 파악 가능한 단체시 지원

❺ 도내 여행사

10인 이상 차량임차비 지원

비수기 • 1박 : 40~60만원
• 2박 : 60~80만원

성수기 • 1박 : 30~50만원
• 2박 : 50~70만원

※ 유료 관광지 1곳 이상 방문시 지원

❻ 뱃길이용 여행사

10인 이상 숙박비 지원

(1박) 3만원 / (2박) 5만원 / (3박) 7만원 (업체당 최대 300만원)

※ 유료 관광지 2곳 이상 방문시 지원

3 안전부터 인센티브까지? 즐거운 수학여행!

❶ 수학여행

10인 이상 차량임차비 또는 안전요원 고용비 지원

1회 최대 100만원(학교별 최대 350만원, 횟수 제한 X)

※ 도외에 위치한 초·중·고교 대상, 학교 직접 신청

❷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숙박시설, 음식점, 체험시설 등에 대한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사전 점검 서비스 제공

• **추진방법** 신청(50일전) → 접수(점검요청) → 점검결과 통보(10일 전)
• **운영현황** 554개교(95,117명) 3,674개소 서비스 신청(2025년 6월)

신청 및 문의

• **신청 :** 제주여행 공공 플랫폼 탐나오(www.tamnao.com) 회원 가입 후 신청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국내마케팅팀 ☎ 064-741-8782 / 064-741-8771~8773

Jeju 제주특별자치도

SINCE 1970

55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

국민과 함께해 온 역사의 날들을 되새기며,
더 희망찬 미래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